

政治 기득권 포기 새판 짜야한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결산

기성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권 말 레임덕은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李明博정부의 정치부재와 국민소통 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치가 존경을 못 받고 비아냥과 심지어 능멸을 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해결주체는 정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통이나 고뇌를 감내하지 않는 2040세대는 무뇌(無腦)세대라는 분석과 함께 이들의 뒷받침을 받는 安哲秀현상은 6, 7개월 단기 증세로 끝날 것이라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판으로는 안 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뿌리 있는 정당을 중심 기둥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처방이 제시됐다. 이명박대통령은 1년여 남은 임기중 법치를 바로 세우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실현(11월22일 국회 비준안 통과)시켜야 하며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더 이상 정치 조종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되 여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대한언론인회는 趙庸中 전 연합통신사장, 南時旭 전 문화일보사장, 宋復 연세대 명예교수를 11월14일 서울태평로 프레스센터로 초청, 정답을 가졌다. 이 정답은 대한언론이 지난 1년 동안 다루어온 '위기의 한국 진단' 주제 시리즈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언론인회 洪元基 회장과 사회를 본 文明浩 논설고문, 成樂五 편집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날 정답에서 조용중 전 연합통신사장은 정치나 경제, 언론 등 분야에서 사

鼎

南時旭 <전 문화일보사장·세종대석좌교수>
 宋復 <연세대명예교수>
 趙庸中 <전 경향신문편집국장·전 연합통신사장>

談

때 : 11월14일 장소 : 서울중구태평로 프레스센터

사회 : 文明浩 대한언론인회 논설고문
 글 : 崔熙助 본보편집위원·세종대석좌교수



정답을 나누는 송복 교수, 조용중 회우, 남시욱 회우(왼쪽부터).

국민 소통 실패 능력의 대상으로 추락 뿌리있는 정당 탁월한 지도자 나와야

회흐름을 선도하는 지도자가 나오는게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MB정부만큼 국민소통이 막힌 정권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도라면서 착한 사람, 기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는 정당이 안 되며 탁월한 정치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날 올드 미디어를 능가하는 시공(時空)압착으로 세계적인 원활한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인터넷

에 과답이 떠도는 문제는 무책임한 보도전파에 기인한다며 제도언론에서 걸러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포퓰리즘은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한술 더 뜬다는게 문제라며 그 폐단을 경계했다.

남시욱 세종대석좌교수(전문화일보사장)는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앞이 안 보이고

공식이 안 나오는게 문제라며 2040세대의 폭발하는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MB 정부는 좌파로부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해 중북세력을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며 북한의 공세가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권재창출 열망이 있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 새판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넷의 문제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사양산에 있다며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제는 왜곡된 교육에 있는 만큼 2세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복 연세대교수는 세계적으로 반정치, 반정부, 반언론의 3반(反)현상이 공통적이라며 경제 외교면에서 상당히 성공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불신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에 성공해도 정치 실패를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며 MB정부의 정치 실패는 의제설정 못하고 꿈과 희망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에서 정치를 몸에 익힌 사람이 상층과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를 하되 정체성과 결단성, 강제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느 나라든지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지도자가 경제재정적 맞춤형 복지를 해야 후유증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K]

2·3·4면에 정답 지상중계

대한언론인회 대토론회 '2012 총선·대선, 그리고 국민의 선택'

대한언론인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12월 5일(월요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2 총선 대선,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주제로 특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12년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큰 정치적 이벤트들이 잇따라 우리 사회는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언론인회는 2012년 국내 정치정세

를 전망해 보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에 임하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토론 후 회식도 있습니다.

12월 5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행사 일정>

일시 : 2011년 12월 5일 오후 2시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대주제 : 2012 총선 대선, 그리고 국민의 선택

제1주제 : 2012년 국내정치 전망

발표자 : 박효중(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근(KBS 해설위원)

제2주제 : 2012년 총선 대선과 국민의 선택

발표자 : 류석춘(연세대 교수)

토론자 : 전희경(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최희조(분회회우·세종대 석좌교수)

사회 : 문명호(분회 논설고문·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예측가능 미래 청사진 시급하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결산 鼎談

洪元基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년 동안 '위기의 한국' 진단을 주제로 하는 회우 칼럼과 전문가 논평 및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처방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 분 원로를 모시고 고견을 듣는 것으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답 사회는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논설고문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文明浩 2012년엔 일대 정치변혁이 예상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정치판도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2040세대는 이념과 정책에 관계없이 기성정치에 대해 무조건 싫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젊은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치불신을 어떻게 치유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과 나라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지,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庸中 정치불신이니 위기 상황이니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금년에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안철수 신드롬'이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나 더욱 그렇고 그 뿌리는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만 겪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 현상입니다.

南時旭 위기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집권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정당정치가 해체단계에 있고 대의정치는 엉망이며 국회기능이 실종됐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제2중대고 한나라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진짜 위기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위기냐, 조 선생 말씀처럼 정권 말 레임덕 탓도 있지만 문제는 앞이 안 보이고 공식이 안 나온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내년에 누가 대선후보로 나올지 몰라요. 한나라당은 수구 기독교 보수가 되어 방향감각을 잃었고 민주당은 좌파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지도층이 표류하고 있어요. 정당은 정치의사를 결집하는 매개체인데 단단히 고장나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선거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민주주의 자체에 회의감이 팽배 합니다. 2040 젊은 층의 폭발하는 분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경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서 국가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위기입니다.

宋復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치불신이 큼니다. 두 분 말씀처럼 임기 말 레임덕은 다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YS나 DJ, 노무현 정권말의 공통된 레임덕이 아니고 다리가 완전히 잘린 오리의 정치입니다. 이명박정부처럼 역사상 많은 표차로 집권한 정권이 없는데 다른 어느 정권보다 더 심각한 불신을 받는 건 무엇 때문

작했습니다. 흔히 2040세대 젊은이들은 지역이나 이념갈등과는 무관합니다. 종북 친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 인구는 65%, 50대 이후는 35%입니다. 65%가 엄청난 힘의 소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임덕도 다같은 세계적인 레임덕이면서 우리나라만이 갖는 독특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MB(이명박대통령)정부는 상당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두 위기인데 연동돼 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것 등은 프랑스혁명을 연상시킵니다. 거대한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때리는데 전비지출 등으로 14조달러 빚을 지고 허덕이게 돼 미국 힘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 급부상해 세계의 힘이 서에서 동으로 옮겨갑니다. MB들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몰라도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에 몸서리친 유권자들이 530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시켰는데 보수도, 진보도 다 좋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합적 혼란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젊은이 분노에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 하는 게 바로 정치 리더십입니다.

宋 정치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정치가 실패하면 실패한 정부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질서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국민에다 일본경제는 세계 2,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린 20년 입니까, 정치 때문입니다. 지난 5~6년 동안에 총리가 6, 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치는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술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와 배기량 등을 감안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MB정부의 정치실패는 조 선생 말씀처럼 의제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미래 꿈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 미래비전을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980년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10년대 였지만 국민은 그때 상승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게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능성을 못 가져요. 절망, 분노, 무관심으로 아노미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규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화하고 다원성 다양성이 많은 사회로 나아가고 따라서 이해관계의 상충성, 갈등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치를 몸매 익힌 사람이 상충과 갈등을 해결 하는 게 정치입니다.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영국의 처칠, 대처수상,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MB는 조화와 균형의 정치에서 실패했습니다.

趙 소통에서 지나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 보수세대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다른 국민

3면으로 이어집니다.



조용중 회우



남시욱 회우



송복 회우

사회흐름 선점한 지도자 나와야 할때 '안철수 바람' 6~7개월 뒤 소멸 예상

인가. 2040세대와의 세대갈등을 갖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보아도 우리만 그런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정치불신은 세계적 공통 현상입니다. 반정치, 반정부, 반언론의 3반(反) 현상입니다. 정치불신현상은 서구에서 해적당을 출현시켰습니다. 해적당은 독일어로 '파라텐 파르타이(Piraten Partei)'라고 합니다. Piraten은 영어의 Pirate (해적)이고 Partei는 Party (정당)입니다.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등 다양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무기로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정당입니다. '해적'이란 이름은 불법 음반·영화 자료들을 '해적판'이라고 부르는 데서 따왔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複製)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 용도의 복제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인터넷 검열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독일 해적당은 201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8.9%의 득표율을 올리며 지방의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해적당 당수는 20대 후반이고 당원들은 거의 다 30대 초반입니다. 기존 정당은 정강정책을 앞세워 정당을 만듭니다. 그러나 해적당은 소통되는 젊은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어 놓고 정강을 만듭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Street)"는 것도 그런 현상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SNS를 타고 해적당 현상이 일어나기 시

G20정상회담 유치개최와 연간 무역액 1조달러 돌파, 4대강 개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성언론이 불신을 받습니다.

文 정치 정계개편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趙 정치가 만능일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출중한 지도자가 있어서 어떤다를 선점하고 그런 정치세력과 정치지도자가 있으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겠는데, 지금처럼 정치불신 속에 새정당이 나온다고 정치가 회복되겠는가. 가령 김영삼, 김대중 같은 출중한 지도자가 정당을 만든다면 그리 쏠리고 따라가고 여론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없어요.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지도자든 사회흐름을 선점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게 선결문제가 아닐까 봅니다. MB는 잘 했는데 무엇을 위한 MB냐, 'MB이즘'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격화소양(隔閡抑養)입니다.

南 한국사회는 지금 내일이 안보일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이 모

지도자가 조롱거리 돼선 안된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결산 鼎談

2면에서 이어집니다.

처럼 됐어요. MB정부만큼 국민소통이 막힌 정권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불가사의할 정도의 정치불신을 뚫지 않으면 무너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文 기존 정당은 해체되고 새로 태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안철수 당이 나온다면 젊은 세대의 불만 분노가 가라앉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趙 착한 사람, 기부 많이 하는 사람 갖고는 정당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중을 모을 수 있는 탁월한 영도력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2040세대는 자신들이 모여 즐길 뿐이지, 정당을 조직할 정도의 통합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세력의 정당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南 장래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MB정부 실패를 승 교수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카리스마도 없고 추종 핵심세력이 없어요. 조국근대화를 내건 박정희 같은 강한 지도자나 이승만 같은 리더십에 국민은 쏠립니다. MB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와 친북세력이 반대하는데도 한 마디 안 해요. 대통령 권한은 막강합니다. 국회를 소집하고 국회에서 연설할 권한이 있는데 너무 유약합니다.

宋 새 정치관, 새 정치세력, 새 정당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철수 현상을 제압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란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참모습입니다. 둘째는

결단성과 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단성 있게 과감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셋째는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사회과학 창시자인 막스 베버는 정부란 '폭력의 합법적 독점(legal monopolization of naked forces)'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부만이 탱크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강제성은 고사하고 두드려 맞기만 하는 나약한 정부가 이 기능을 되찾기란 어렵습니다. 정

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추상적 사고를 할 줄 모릅니다. 추상적 사고란 사물과 개념들에서 공통 현상을 뽑아내 그 공통된 특징을 갖고 사고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건 아예 질겁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셋째는 철학적 사유를 못 합니다. 객관적 사고와 밝고 지혜로운 사고 깊은 사유를 못합니다. 인터넷 속 정보를 검색하는데 주관적이고 믿고 싶은 것과 찾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고용창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잘 안 나오지만 먹고 살만한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무늬세대는 기성세대의 경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꿈, 모험과 도전정신이 없습니다. 고통이나 고뇌를 감내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 2040세대며 안철수 현상을 뒷받침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6,7개월 정도 지나면 바람이 빠집니다. 다행인 것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는 바람물이 갖고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판은 안 되고 새로 짜야 합니다. 정당이 중심 기둥이 돼야 합니다.

趙 정치비판을 선도하는 게 정치, 정치인, 정당인데 존경을 못 받고 비아냥을 받고 능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업자득입니다. 해결주체는 역시 정치입니다.

文 MB정부의 실책은 정권출범 초기에 친북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오히려 친북세력을 키워 안보위기를 불러왔다고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명호 고문



홍원기 회장



최희조 편집위원

정체성-결단성-강제성있는 정부 필요 친북세력 정치권서 부추기는게 문제

부의 본래 기능이 폭력에 기반한 강제성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2040세대 특징 위에 있습니다. 안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들 젊은 세대의 특징은 첫째, 무뇌 세대입니다. 뇌는 있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글을 아는 문맹자입니다. 글을 아예 모르는 문맹자를 가르치기는 쉬워도 글을 아는 문맹자를 가르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말의 80%가 한자어인데 이들은 한자를 모릅니다. 생각하는 글자인 한자를 모르니 글자와 글의 의미를 모를

싶은 것만 찾아 사고합니다. 사고의 편식, 편향, 편파, 편벽 현상에 빠지고 공정성을 갖지 못할 뿐 더러 말초적 얘기만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30대가 제일 빛이 많고 20대는 빛 증가 속도가 높으며 40대는 70% 가구가 빛을 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안 갑니다.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들어와 많은 일

趙 친북세력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회발전 측면에서 자연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용하고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만연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문학작품에 나오는 건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정치세력이 용인을 넘어 부추킨다는 점입니다. 계속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대한언론인회는 12월 23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올해 고회(1941년생)를 맞이한 회우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축하연을 배운다.

이날 축하연엔 제13회 전국 민요경창대회에서 명창부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승은씨(사진)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이승은씨는 서울예술대학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김혜란선생으로부터 경기민요를 사사받은 명창이다.

올해 고회를 맞은 회우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괄호 안은 전직)

〈고회 회우 명단〉
권대웅(한국일보 편집부차장)

2011년 송년회 겸 고회회우 축하연

12월 23일 오후6시 프레스센터 20층

김경훈(조선일보 교열부장)
김광삼(매일경제 편집국장)
김대환(대한일보기자)
김영범(대한일보 기자)
김주철(KBS국제방송국장)
김진기(KBS 해설위원)
노영순(문화방송 강릉보도국장)
배병휴(매일경제 주필)



송충섭(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오건환(KBS 파리총국장)
윤기로(KBS해설위원)
윤석봉(동아일보 사진부기자)
이경재(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민희(KBS 동경특파원)
이병대(KBS 해설위원)
이석희(KBS 보도국장)
이해성(SBS 라디오국장)
정대수(매일경제 과학기술부장)
정일화(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준창(조선일보 편집위원)
조천용(동아일보 사진부기자)
최연석(신아일보 문화부기자)
한광희(한국일보 사진부장)

복지정책 ‘재정맞춤형’ 돼야 한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결산 鼎談

3면에서 이어집니다.

南 동감입니다. 종북세력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가 나빠져 국방비를 삭감하고 중국이 북한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안보위기 상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MB정부는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도록 방치했습니다. 좌파로부터 욕을 안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공세가 치열해질 것입니다. 내우외환, 외우내환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정권재창출 열망이 있다면 득권을 포기하고 새판을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어렵습니다.

宋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이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지배가 경제 정치지배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좌파 종북세력을 MB정부 초에 척결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南 KBS사장 한 사람 바꾸는데 1년이나 걸릴 정도였죠.

文 현행 실정법 위반에는 엄중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宋 실정법 위반 인식이 YS이후 아주 낮아졌습니다. DJ, 노무현 정부 때에는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법이란 강제성을 띠는데 법 자체가 아예 없는 법이 됐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이 셋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노태우대통령 때보다도 후퇴해 버렸습니다.

文 일부 인터넷과 트위터등 SNS를 통한 루머확산이라든지 과담 전파 같은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趙 인터넷 과담 자체는 문제지만 세계적으로 원활한 소통에 인터넷의 기여가 큼니다. 제도적 언론이 해결 못한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시간과 공간상 갭을 뛰어 넘습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 저널리즘 상인 폴리처상이 2009년부터 인터넷매체도 시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시간과 분량에 제한 없이 취재 보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일본 대지진 때에도 트위터가 현장을 커버해 유용한 정보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황당한 과담에 직면해야 하는가. 송교수 얘기처럼 젊은이만이 주로 이용하고 생산하는 부작용이 아닌가, 제도언론에서 과민 반응하는 측면도 있고 목살해도 좋은 얘기를 전파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버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도언론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南 중국에선 인터넷 매체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취급하면 영구 추방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받지 않은 인터넷매체 사람들의 기사양산에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행위를 사전규제 할 수는 없어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宋 인터넷 기능의 양면성에서 긍정적인 면은 감정을 씻는 기능, 분노와 원한을 카타르시스하는 기능입니다. 2040세대의 특징은 60~70%가 사회적 불안세대입니다. 현재와 장래를 모두 불안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 살았을 때 느꼈던 것보다 더 불안합니다. 행복지수는 더 떨어집니다. 인터넷이 이러한 불안과 분노를 씻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히는 데 대해선 민법으로 벌금을 많이 물려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법을 잘 지키는 건 잘못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기 때문입니다. 과담이 난무하는 건 공적 신뢰

년임기를 3차례나 지내고 김일성을 만나 인터뷰를 한 첫 지사였습니다. 구석구석 복지확장정책을 썼다가 퇴임후 미노베 도정은 적자도정이란 낙인이 찍힌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야당만 복지포퓰리즘 하는게 아니라 여당이 한술 더 뜬다는게 문제입니다. 남의 뒷다리 굵고 민주당 2중대 한다는 치욕적 얘기를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宋 박 서울시장 복지프로그램이 재미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2, 3가마니로 불리는게 아니라 한 술에 모두 쏟아 부어 싹 갈라 먹는 식입니다. 국가사회발전 단계상 복지란 거슬러서도 거스를 수도 없는 명제입니다.

국가건설, 국민형성, 경제발전, 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5개 발전단계가 있습니다. ▲1인당 3천달러 이하 시대를 ‘먹음시대’, ‘well eating’ 시대라고 합니다. 남한은 1970년대 3천달러를 넘어서면서 해결했습니다. 북한은 그 20년 뒤 90년대 와서야 김일성이 ‘이팝에 고기국’ 운운 해서 남한 좌파를 실망시켰습니다. ▲1인당 3천~1만달러가 되면 ‘가짐시대’, ‘well having시대’에 접어들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장만

宋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의 변증법에 따른다고 할까요. 결국은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하는 실체적 자유민주주의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넣거나, 안 넣거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세력비율은 25%에서 10% 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이 최후과정이라고 보고 나는 낙관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南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제는 왜곡된 교육에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저지른게 아니라고 학교 선생이 버젓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칠 정도입니다. 2세 역사교육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宋 전교조 가입 교사가 갈수록 줄어들니다. 대학에서 보면 10년 전엔 진보성향 학생들이 보수보다 많았는데 2,3년전부터 보수가 진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런 이념성향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낙관적으로 봅니다.

文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MB정부가 1년 남짓 남은 임기 중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宋 한미FTA는 통과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개선, 개조, 개혁입니다. 우리 GDP의 60%는 서비스업에서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현재 우리 제조업의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은 장차 우리의 거대한 블루오션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아주 낮습니다. 한미 FTA 비준과 함께 이 서비스업의 ‘대폭발’ 이 장차 우리의 살길입니다.

趙 늦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주문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치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MB는 정치를 안 해요. 국정이 표류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 “나는 여의도와 담뱃고 지내겠다”고 합니다. 정치란 흙탕물입니다. 지조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뚫고 나가야 합니다. 재언하지만 능욕을 당하고 조소거리가 되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南 지도자란 증오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법집행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외교는 무난한데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담에 핵확산금지까지 의제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말 노무현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포퓰리즘 興黨서 한술 더 뜨는게 문제 인터넷 怪談 제도권 언론서 걸러줘야

가 무너져 자동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제도언론에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법으로 대응하되 놓아두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제풀에 꺾입니다.

文 복지 포퓰리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南 복지도 좋지만 경제성장을 감안해야죠. 복지를 해야 성장한다는 건 일방적 주장입니다. 한강에 만들려던 외국인용 관광 인프라 건설을 중단하고 무상급식을 하는 건 문젠데요. 우선 입에 달고 국민이 좋아하는 복지포퓰리즘에 기생하려는 정치에 대해 언론이 즐기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신문들을 보면 우파는 잘 안 쓰지만 좌파의 글을 많이 게재합니다. 복지가 최상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선진국들이 재정파탄과 국가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한심한 건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2중대가 되는 겁니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보수 철학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셈이죠.

趙 포퓰리즘 폐해의 단적인 일본 예가 있습니다.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동경도지사 얘긴데요, 마르크스경제학자로서 NHK 방송에서 부드러운 경제학, 친절한 경제학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회당과 공산당 연립공천으로 당선돼 4

하는 시대가 됩니다. ▲1만~2만달러가 되면 ‘big shift 시대’, ▲2만~3만달러에는 ‘누림시대’, ‘well being’시대가 됩니다.

삼안(三安)과 삼편(三便)시대입니다. 삼안은 안정, 안전, 안녕이고 삼편은 편안, 편리, 편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3만~4만달러가 되면 다시 ‘big shift 시대’, 그리고 ▲4만 달러를 넘어서면 ‘이름시대’, ‘well fulfilling 시대’입니다. 내면적 가치, 내 인생가치를 실현하려는 단계입니다. 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복합적 중첩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행복지수는 경제적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떨어집니다. 1인당 연간소득은 2천달러에 불과하지만 히말라야 오지인 부탄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위로 가장 높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지프로그램을 안 만들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지도자가 경제재정적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능력이 안 되면서 복지를 하면 망하죠. 일본도 복지지출 때문에 엄청난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국가채무의 90%를 자국 국민이 채권으로 갖고 있어 디폴트 가능성은 희박하죠. 정치인이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디폴트로 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文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데요.

SNS 허위유포 주범은 좌파 지식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나는 꼼수다'의 멤버 주진우 시사인 기사를 '박정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주 기자는 지난달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당시 주 기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영남대·정수장학회가 있는데, 모두 10조원이 넘는다. 64년에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시사저널 시절부터 여러차례 특종을 터뜨린 기자로 유명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노건평씨의 처남 민경찬게이트를 파헤쳐,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막아내는 전과를 올린 바도 있다. 이런 주진우 기자조차도 인터넷 상에서 막말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 폭로로 인기를 얻자, 오프라인 행사에서조차 위법 시비가 걸릴 만한 발언을 이어갔던 것이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전후로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 공간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도를 넘어섰다. 특히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SNS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통 경로를 추적해보면 대부분 기자나 교수 등 저명인사로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판도를 뒤엎은 사안은 나경원 후보가 1억원대 피부샴을 다닌다는 설이었다. 이 설의 최초 유포자가 바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나경원 후보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신의 딸의 피부 치료를 위해 연간 50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 딸과 함께 피부 치료를 받은 게 전부이다. 이 사건은 나경원 후보 측의 고소로 법정에서 판결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장 선거는 끝이 났고, 선거 이후에는 그 누구도 1억원대 피부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SNS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은 소아정신과학회의 홍보이사인 서천석씨이다. 서이사는 나

특별기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소통보다 정치적 선전 악용공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마땅

경원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 "아, 이건 아닌데...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만 청소년기에 항노화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아마도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다운증후군의 조기노화 이야기가 나왔겠지. 그러나 그것은 성인 다운증후군 이야기. 급하니 잘못 갖다 붙였다"라는 내용의 견해를 트위터에 남긴 바 있다. 서이사의 트위터 글은 순식간에 뉴스앤뉴스 등 일부 좌파 매체에 의해 기사화되었고, 수만 건의 글이 복제되어 트위터 공간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서이사는 소아과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 의사도 아닌 정신과 의사일 뿐이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의 경우 피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전문적인 자료가 뉴데일리 등 인터넷신문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자 서이사는

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것이 트위터 상에 퍼진 사례는 다양하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있다. 또, 한 중앙지의 모 기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칼럼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트위터에 올리고, 이것이 사실 인양 유포되기도 했다. 즉 현재 트위터 등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대부분 친노좌파 진영의 지식인들이 시작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무법천지로 보이는 SNS의 공간 역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법적으로 SNS 공간은 인터넷 공간과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공간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처벌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된다. 그러므로 SNS 공간을

규율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을 규율한다면 그 연장선인 SNS 규율도 해야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상의 블로그, 카페 등과 비교하여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허위사실글이 블로그에 오르면 심의나 처벌을 받고 트위터에 오르면 면책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실과 다른 글을 띄우고 있는 일부 지식인들 스스로 거짓선동을 자제하는 게 우선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트위터 상에서 거짓선동을 지속한다면, 이들이 소속되어있는 언론사, 대학, 병원학회 등에서 얼마든지 내부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서천석 이사의 발언에 대해 수도권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다. 자신의 전공 분야로 추측을 해도 큰 문제인데, 다른 분야로 어떻게 저런 무모한 추측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서이사가 평소 자신이 직접 면담해보지도 않은 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트위터로 상담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아슬아슬하게 생각해왔지만 결국 사단이 난 것 같다"며 서이사를 비판했다. 즉 트위터 상에서 기자, 교수, 의사 등 전문가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해당 집단에서 즉각적으로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들의 거짓선동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위터 등 SNS 공간은 알려진 것과 달리 소통보다는 정치적 선동에 더 적합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짧은 단문의 글이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유포될 뿐,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문집단이 이를 악용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를 막아야하는 책임 역시 바로 그 전문집단에 있다. [4]

‘아차, 큰 일 날 뻔 했구나.’ ‘저런 애를 뽑았더라면 어찌 할 뻔 했는가.’

지난 대선에서 여당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가 여당후보가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참신한 맛이 있었다. 정치철학도 좀 있어보였다. 열정도 사 불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데군데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그와 그의 진영에서는 이러저러한 낙선이유를 들먹였지만 결정적 요인은 그의 자질부족이었다. 막바지 TV토론에서 선두주자인 야당후보를 향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조차 불쾌하다'며 독기를 내뿜은 것은 그의 자질과 품성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단면이었다. 아마도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는 요즘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가히 눈꼽사납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행정부 관료에게 '이완용'운운하며 막말을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인가. FTA찬성은 매국행위, 반대는 애국이라며 국민까지 불모로 삼는 선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도를

從北 아니면 本北인가 - 어느 정치인의 황당한 행태 -

지나친 위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일견해도 그는 지금 해매고 있다. 아니,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날의 행적을 몽땅 땅에 묻어버린 채 지금은 또 무엇을 획책하는가.

지난날의 행적을 더듬어보면 마치 누더기

처럼 너덜거린다. 군부독재시절 방송기자를 하면서 권부에 얼마나 꼴사나운 아부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대선에서 떨어진 뒤 연고도 없는 서울



최병요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동작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 '동작에 빠를 문졌다'며 표심에 호소했던 그가 여기서도 떨어지자 홀연히 고향 텃밭인 전주 덕진으로 돌아가 버렸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FTA건만 해도 그가 여당의 대표시절의 행정부가 시작한 일이고 그는 목에 힘줄을 세우며 지금은 여당인 당시의 야당을 설득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국민을 다 죽이는' 독소라며 극악한 말보다 더 포악한

행동으로 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그것도 혼자서 소신으로서가 아니라 진보좌파 정당들과 어깨동무를 하고서다.

코 옆에 점 붙이고 어설픈 수업 기른 채 날뛰는 골수진보좌파 인사와 함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를 쑥날 결투장으로 만들고 있는 저의가 궁금하다. 그는 말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라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조기타결을 원하고 있다는데 그가 내세우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의 하는 모양새가 영 시원치 않아 누군가 그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가 '내가 왜 종북이냐'며 핏대를 세우는 바람에 무안을 당했다. 그는 친북도 아니라고 잡아챈다. 그렇다고 그가 反北인 것 같지는 않다. 親北도 아니고 從北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本北이거나 原北이란 말인가.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맞춤형 상대와 자웅을 겨뤘던 위인이다. 걸맞는 품위유지를 위해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선량 뒤편 해 주었으면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계 선배로서의 당부다. [4]

北 실상 제대로 제때 알려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대한 실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에서 북한관련 뉴스는 쏟아지지만, 그것을 통해 국민이 북한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김정일이 운영하는 야만적인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국민은 많지 않다. 1990년대 중반에 수백만이 아사(餓死)한 참상도 잘 모르고 있고 최근 벌어진 화폐개혁과 김정일의 3대 세습으로 북한 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관심이 없다.

고등학교 등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학생이 북한에 대해 처음 접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의 실상에 충격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 묻는다.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져 있지만, 옆에 붙어 있는 우리 동족이 겪는 실상을 그토록 외면하고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에 관한 안보교육이 아주 하찮은 것으로 밀려나 그 어느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또한 김씨 왕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판단에 기초한 교육이 아닌 일방적인 반공(反共)교육은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의를 포기한 사이비 봉건 교주국가로 전락했

기 때문에 반공이 아니라 반(反)사이비 반봉건과의 대립과 투쟁으로 정의를 내렸어야 했다.

과거 반공시대에는 의무적으로 반공교육을 받았지만, 그것 또한 반대를 위한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이념에 쉽게

특별기고



강철환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연구위원

면하기 때문에 언론에 잘 등장하지도 못하지만, 언론 스스로 북한에 대해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데 익숙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나 그의 아들 김한솔의 사생활은 우리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 언론에서 주목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돕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우리 동족에 대한 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대한민국 언론은 공공의 목적에서 상업주의와는 별개로 북한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수 언론들에서 북한관련 섹션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북한문제를 추진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 KBS나 MBC의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도 시청률이 가장 낮은 늦은 밤에 주로 편성돼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대부분 언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정일 정권이 3대 세습을 단행하면서 북한 내부의 반발 압력이 거세지고 대외적인 경제 봉쇄로 북한체제가 더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다가오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제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

편집자 주 : 필자는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 수감 중 1992년 탈북했다. [4]

反共교육보다 진실 전파가 중요 급변사태 직면 국민 거의가 몰라

물들게 됐고 오히려 반공 교육에 대한 반발심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의 김씨 왕조가 어떤 사회이고 왜 나쁜 정권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두 번째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북한 뉴스는 김정일 정권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6자회담이나 행사 위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사생활이나 왕족들의 일거수가 흥미거리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진실과 실상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이 외

한 두 개인의 사(私)생활일 뿐 그렇게 가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도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상황에서 북한에 관한 진실 역시 언론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모든 언론이 북한문제를 과도하게 집중하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북한을 잘 알고 관심이 많게 된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돼 북한

노년층 겨울나기 지혜

아마 회우 여러분도 예전에 어르신들 뵈면 “근력 좋으십니다” 하고 인사와 덕담을 보냈을 것이다. 노년이라도 근력이 좋다는 말을 듣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후배나 젊은이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르신 근력 여전하시죠?”하면 더 없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근력-노인과 젊은이들의 차이는 나이의 차가 아니라 근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근력이 떨어지면 우선 힘이 달리고 양기도 떨어진다. 또 면역력도 부족해진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그야말로 이팔청춘이지만 몸이 뜻대로 들질 않는다.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한다.

더구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이 부족해 피부가 늘 건조하다. 피부의 재생기간도 한참 길려 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 담배 냄새가 피부에 배어 주위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뿜기도 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이다.

노인은 계절로 치면 겨울이다. 어린이는 봄이다. 겨울은 차갑고 건조하고 햇볕이 부족하고 눈 내리는 날도 많다. 그래서 노인들의 겨울나기는 정말 힘들다.

추위 덜 타려면

몸이 차가우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데 그만큼 심장이 부담을 받는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찬

기운의 영향으로 심장마비를 비롯해서 심근경색, 뇌경색, 중풍과 같은 위험한 병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위를 막는 데는 두꺼운 옷도 중요하지만 머리의 보호가 중요하다. 사람 몸의 제일 높은 곳이 머리인데 그 맨 꼭대기에 백회(百會)란 경혈 자리가 있다. 이 경혈은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몸의 더운 기운은 머리로 올라간다. 민머리로 있을 경우 더욱 추위를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겨울철엔 꼭 모자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모자와 귀마개 또 목도리 까지 하면 체온 손실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

건조하면 병 자초

다음은 수분조절이다. 노인은 수분이 부족하고 겨울철에 더 심해지므로 수분조절이 중요하다. 숨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기도(上氣道) 즉 기도 점막의 점액은 외부공기가 우리 몸의 내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데 여기가 바이러스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중요한 면역 기관이다. 그런데 공기가 건조하면 상기도 점막의 점액 분비가

적어져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감염되기 쉽다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걸려도 편도선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겨울철 집에는 가습기를 틀어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되나 요즘 문제가 되는 가습기에 살균제 같은 약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명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가습기는 청결하게 청소해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또 건조하면 피부가려움증, 불면증에도 시달리므로 가습기가 없으면 빨래를 널어두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피부의 수분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정도 목욕을 하고 연한 비누를 쓰며 각질을 벗겨내지 말아야 한다. 각질을 벗겨내면 유지방 손실로 수분유지가 안 된다. 마스크를 하는 것도 내 몸을 드나드는 공기의 수분조절과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낙상사고 방지하려면

건강한 노인이라도 겨울은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상시기이다. 왜냐하면 눈이 오면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눈 온 날이나 눈 온 후 며칠 동안은 눈에 미끄러지는 낙상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외출할 때 평소 신는 구두나 운동화는 신지 않는 게 좋다. 요즘 눈길이나 얼음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나왔다. 값은 약간 비싼 편인데 자녀들이 연말이나 연초 부모님 선물 뭘 해드릴까요 할 때 그걸 장만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팡이인데 지팡이 짚는 걸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요즘 흔한 등산용 지팡이는 멋도 있으니 이것으로 마련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날씨가 추우면 젊은 사람도 근육이나 신경이 위축돼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노인들은 정도가 더 심한데다 신체의 평형 유지기능이 퇴행되어 잘 넘어지거나 잘 골절되기 쉽다.

노인이 되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심해지는데 이것도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다소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꼭 쏘이면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 칼슘 흡수와 뼈의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여기에 음식도 함께하면 좋다. 명태, 대구의 간유, 고기, 계란 등에 비타민 D가 많다. 두부나 청국장 같은 칼슘 성분의 음식도 좋다.

그리고 한편으로 뼈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다. 그러나 날씨가 추울 때

7면으로 이어집니다.

元老언론인 ‘못다한 이야기’ 집대성

대한언론인회 ‘실록-언론·언론인의 길’ 출간

70세이상 집필자 엄선

12월 23일 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실록 언론·언론인의 길-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를 펴냈다. 먼저 출판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은 필자 선정기준이었다. 몇 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론은 우선 70세 이상, 언론 생활 20년 이상의 회원을



김은구

·본회 상담역
·전KBS이사
·실록 출판위원장

일 열린 출판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제목을 ‘실록 언론·언론인의 길--(1) 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로 결정했다. 책 출판 작업을 하고 보니 필자로 선정되어야 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언론인들도 많이 있었다. 앞으로 계속 출간될 책에는 더 많은 언론인들의 이야기가

필자로 선정하되 (1) 정치계(장관, 국회의원)에 몸담았던 회원 (2) 자서전적 책자를 이미 발간한 회원, 집필희망제목과 동일한 책자 발간자 (3) 대한언론인회에서 발간한 ‘독취 한국언론사’ 등재자 (4) 회보인 ‘대한언론’의 실버파이팅에 소개된 회원 (5) 관훈클럽이 발간한 ‘관훈저널’에 이미 회고록을 게재한 회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엄선한 집필대상자 중에서 집필을 사양한 회우 등을 제외하다보니 최종 대상자가 60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에게 200자 원고지 30장 분량의 언론생활 20년 이상의 뒤안길을 쓰면서 비화, 특종이나 못다한 이야기를 팩트 중심으로 정확하게 쓰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모아진 원고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2

수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의 시리즈 넘버를 제 1권으로 한 것은 대한언론인회가 존속하는 한 후속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바람에서다. 사실 언론인들이 소속사를 떠나고 나면 글을 쓸 지면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인들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연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은 언론 사료로서 평가할 가치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집필자중 여러 사람이 원고청탁을 받고는 “잘난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을 텐데...”였다. 그래서 집필자 선정기준을 얘기해 주면서 “못난 언론인과 겸손한 언론인의 책을 만들려고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었다. 흔쾌히 육고를 보내준 필자여러분께 출판위원장의 입장에서 중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4]

대한언론인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원로 언론인들이 현역시절에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정리한 ‘실록 언론·언론인의 길’을 출판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12월 23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실록 언론·언론인의 길’은 20년 이상 언론계에 몸담았던 퇴역 기자들의 경험담을 묶은 책이다. 기자시절 취재과정의 체험담, 쓰지 못했던 비화, 언론계 생활을 되돌아보는 회고담도 있다. 언론인들이 현역 시절에 지켜보았던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거나 자신이 몸담았던 언론계의 과거를 돌아켜 보는 글을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판위원들이 신중하게 선정하여 청탁한 후보자 가운데 글을 쓴 회원과 출판위원은 다음과 같다.

〈집필자〉

강승훈(대한일보 편집부국장) 계창호(현 북한연구소 소장) 고두현(서울신문 국장급기자) 공대식(문화방송 해설위원)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 구월환(연합통신 상무이사) 김광희(동아일보 이사회제작국장) 김귀제(경향신문 정치부장) 김두근(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김석성(중앙일보 출판제작국장) 김성배(KBS 제주총국장) 김진규(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진기(KBS 해설위원) 김춘빈(대한일보 정치부장) 김호기(한국경제 사회부장) 남시욱(문화일보 사장) 노상국(동아일보 심의위원) 맹태균(경향신문 편집위원) 문명호(문화일보 논설주간) 박미정(KBS 사회교육국장) 박진서(서울신문 논설위원) 박화진(서울신문 논설실장) 배병휴(현 경제포털 발행인) 성병욱(중앙일보 주필) 송정제(부산일보



보 사장) 송형목(조선일보 뉴욕특파원) 송효빈(한국일보 논설위원)

신동식(서울신문 논설위원) 신동호(동아일보 뉴욕특파원) 신상현(동아일보 주일특파원) 심상기(경향신문 사장) 안평선(KBS 춘천방송국장) 오건환(KBS 경제부장) 오근영(연합통신 상무이사) 유승택(신아일보 편집국장) 윤상철(경향신문 주필) 윤양중(동아일보 정치부장) 윤익한(코리아헤럴드

주필) 이광영(한국일보 생활과학부장) 이남규(조선일보 외신부장) 이두석(세계일보 편집국장) 이병대(KBS 해설위원) 이석희(KBS 보도국장) 이태영(중앙일보 색선국장) 이한수(서울신문 사장) 이형균(경향신문 이사 편집국장) 인보길(조선일보 상무) 장덕상(중앙일보 주일특파원) 정기정(문화방송 감사) 정일화(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정홍택(한국일보 월간편집국장) 정희준(KBS 스포츠국장) 제재형(한국일보 편집위원) 조창화(KBS 보도국장) 현소환(연합통신 사장) 호현찬(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홍성혁(동아일보 편집위원)

〈출판위원〉

자문위원 : 이해복(본회 고문) 신우식(본회 고문) 제재형(본회 고문) 조창화(본회 명예회장)

발행인 : 홍원기(회장)

위원장 : 김은구(상담역)

위 원 : 윤익한(상담역) 한기호(상담역) 김호기(감사) 송효빈(감사) 김성배(부회장) 윤기병(부회장) 이병대(부회장) 이태영(부회장) 정기정(부회장) 김해도(편집고문) 문명호(논설고문) 이형균(논설위원장) 성낙오(편집위원장) 정진석(외국어 대명예교수)

주 간 : 정윤종(상임이사)

6면에서 이어집니다.

밖에서 특히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안 좋고 날씨가 풀린 한낮에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되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서 하도록 한다. 운동 후엔 따뜻한 물로 땀을 씻고 땀에 젖은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 양기를 보존해야 한다.

겨울철 음식 뭘 먹지?

그럼 겨울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음식은 담백한 것이 좋다. 이래야만 노폐물의 배설 기능을 돕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정(精)을 기르기 때문이다. 음식은 꼭 따뜻하게 들어야 양기를 보존하며 소화기능도 돕는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그리고 음식은 가능한 한 골고루, 천천히, 정해진 시간에 드는 게 좋다고 한다. 많은 노인들이 음식을 들고 난 뒤 바로 눕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게 되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TV등에서 고기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만 특히 노인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번 씩은 먹어야 하며 속에 열이 나서 답답할 때는 조개탕, 고혈압엔 버섯류 음식, 변비엔 청국장, 해조류, 고구마가 좋으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외로움 달래려면 이렇게

겨울은 외로운 계절이다.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는 더욱 심한데 활동력을 상징하는 양기가 부족한 계절이기 때문이다. 양기가 부족한 노인은 외롭다. 외로우면 우울증, 기억력 감퇴나 불면증이 오기 쉽다.

그래서 노인이 되더라도 의기소침해서 자신이 과거 어렸는데 지금 나는 뭐지 하면서 지금의 처지를 비관하며 또 자식들에게는 섭섭하다며, 부인에게에는 반찬 투정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즉 나의 과거를 잊는게 신상에 좋다는 뜻이다. 이웃과 인사하고 얘기하는 소통이 필요하며 특히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대한언론인회만 하더라도 산악회, 바둑클럽, 건강포럼, 문화재 탐방행사 등이 수시

로 열리고 있고 노인을 위한 극장, 고궁, 음악회, 미술전시회, 사진전시회, 1일 관광, 낚시, 무료 컴퓨터 교육, 무료 보석 교육 등등 많은 행사와 교육행사가 사회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런 곳을 찾아다니며 정서적으로 늘 웃고 즐거워한다면 혈액순환, 신진대사가 왕성해져 그야말로 무병장수로 지날달 토요건강포럼에서 강연한 하나로의료재단 진료원장 오혜영 박사 말대로 100세 까

지 산다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대한언론인회 회우 여러분 요즘 의학 발달과 영양개선으로 사람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 연령도 다시 계산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나이에 0.7을 곱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체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70세라면 70살×0.7=49살. 어떻습니까? 놀랍죠? [4]

이보길 편집위원 기

위험수위 넘은 국회폭력 비판 일색

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고 선언한지 거의 6년만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막가파식 의정 테러 속에 이뤄진 의결이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의정회는 ‘국회의 사당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은 어떤 명분으로도 방임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란 성명으로 국회에서 그를 추방할 것을 촉구했다. 18대 국회 야권의 이런 극렬한 정치공세는 한미FTA 반대를 불쏘시개로 불만 세력을 모아 반미·반정권 투쟁을 극대화해 좌익정권을 세우려는 의도다.

문화일보는 11월 23일 사설에서 “김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로 국격에 치명상을 입혔다. 국회는 즉각 김 의원 제명 절차에 돌입하고, 형사 처벌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는 이런 사람

이 정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반대의 선두에 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을사늑약’ 이완용 운운하며 비준 추진자들에게 극언했지만 ‘한미FTA를 시작한 노 정부에서 당의장과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뭐냐’는 식의 냉소를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주요지들은 한미FTA 비준을 찬성하고 ‘표결 불가피’ 논지를 펼쳤지만 좌파 신문들은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럼에도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함께 힐난했다. 동아일보는 11월 23일 ‘이제 FTA를 넘어 정치 선진화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강행처리의 원인제공을 비판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를 3주째 점거하며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야당은 ‘날치기’ ‘쿠데타’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의민주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지만 타협이 불가능할 땐 다수결 원칙에 따른 표결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의사진행 기본 원칙이 실종되다 보니 정파간 극한 대립이 그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과담의 난무도 정치권 책임이 작지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는 장성한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큰 아들은 외국인 회사에 또 작은 아들은 국내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부모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제주여행을 잡아놓는 바람에 최근에 본의 아니게 안사탐과 함께 2박3일간의 제주 여행을 다녀왔다. 내심으론 좋았지만 부모 의견을 무시한 아들의 처사는 못내 아쉬웠다. 필자는 나의 이번여행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비유하고 싶다. 나이 많은 유권자(50~70대)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젊은이(20~40대)들의 마음대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정치는 젊은이들을 외면하고는 그 어느 정당도 어느 개인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실례를 보여 준 것이다. 한마디로 선거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우리는 올봄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의 ‘재스민혁명’, 다시말해 ‘중동의 봄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무효라고 하지만 그건 억지다. 민주당은 농성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ISD 재협상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등이 제기해온 ISD의 독소적 요소를 제거하는 실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성을 지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결을 한겨레나 경향의 주장처럼 ‘폭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 민주당의 51%의 결정이다. 다수결을 무시한다면 선거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한미FTA는 협정 서명 후 4년여 시간이 흘렀다. 야당은 자동차가 불리

토’를 확장하여 연간 27억 달러의 흑자를 증가시킨다.

이런 조류 속에 이성적인 민주당 한미FTA 협상파 의원들은 트위터로 낙선헤박을 받았다. 트위터가 합리의 소통이 아닌 패거리의 흥기로 돌변한 것이다. 완고한 민주당 지도부는 민노당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정권을 되찾자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도 안철수 원장 같은 시민후보의浮上으로 서울시장 짝이 나지 말란 법이 없다.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연합해 좌경화할수록 비토세력은 커져간다. 정대철 상임고문이 “한미FTA 협상은 노정권에서 시작했고, 찬성 여론이 60%에 달한다.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표결을 저지할 명분이 없다”며 충고했지만 민주당은 듣지 않았다.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인천시장도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돌파구다. ISD는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며 지금 폐기하지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단언했다.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면 북한이 반대한다. 한미FTA도 그렇다. 한미FTA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 안보를 격상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결속을 강화한다. 자주국방이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미국만큼 믿음직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파트너가 될 나라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 신경 쓰이면 한중FTA를 하면 된다.

한미FTA에 당황한 일본이 ‘제3의 개국’이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전격 참여를 선언하며 한국을 견제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라. 좌파 매체들은 한미FTA를 반대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민노당은 감히 항일투사 흥내 내기에 앞서 자신들이 걸어온 반국가적 종북 궤적부터 되돌아보라. 안중근의 사승모회와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는 “두 의사의 거룩한 구국 열정을 최루탄 테러에 비유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하지 않았는가? 

주요지 “표결 불가피” 좌파지 “폭거” 최루탄 테러 김선동의원 제명 촉구

질적 결과를 도출해야 재협상의 의미가 있다. 양국 간 심각한 국익갈등과 반미 감정을 야기할 화근을 남겨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FTA 비준동의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약이며 방대한 법률이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강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다시 한 번 자행했다”고 여당을 공격하면서도 “우리 국회의 행태는 미국 의회와 비교해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4년 반 동안 협상안을 나뉘대로 점검했다. 두 차례 재협상을 통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협상내용을 고쳤다. 이행법률안에는 협정보다 자국 법령이 우선한다는 점을 못박아, 사법주권을 철저히 지켰다. 우리 국회는 피해 대책은커녕 번역문 오류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국회를 통째로 비판했다. 야당도 미 의회 비준이 선결이라는 식으로 일손을 놓은 채 시간을 허송하며 견제 기능을 잃었음을 지적한 셈이다. 경향은 “국가 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는 한미 FTA는 시대의 호

하다며 재협상을 촉구했고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ISD를 물고 늘어지며 장관급 협약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FTA는 장관급이 아니라 의회가 고친다. 문화는 사설에서 “반미가 목적인 FTA 반대세력은 ISD 이슈가 해소된다 해도 또 다른 시빗거리를 몇 개든 새로 만들어낼 것이다”라고도 공격했다.

GDP의 85~90%를 교역에 의존하는 1조 달러의 무역대국인 우리가 FTA협정 체결로 ‘국가권력을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도 황당한 주장이다. 무역은 본래 국가권력이 아니라 기업이 한다. 2005년 현대자동차가 첫 미국 공장을 가동한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는 7,500 명의 고용을 유발하면서 올 11월까지 160만 대를 시장에 팔았다. 몽고메리 시장은 “현대차의 성공은 우리들의 성공이다”라고 말했다. ISD가 한국을 망하게 하며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한다는 말의 실체다. ISD는 글로벌 한국 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투자는 220억 달러, 미국의 대한 투자는 88억 달러였다. 한미FTA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으로 ‘경제 영

박원순 당선과 SNS

(Arab Spring)’을 잘 알고 있다. 컴퓨터 공학도가 취직이 되지 않자 먹고 살기위해 시청 앞 광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다가 공안당국에 걸려 과일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 이 공학도는 경찰서와 시청에 찾아가 며칠을 돌려 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빼앗긴 과일을 돌려주지 않자 끝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시청 앞



김 휴 선

· 본회 회우
· 전 MBC보도국 부국장
· 현 KOBACO공약광고협의회 위원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한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재스민꽃’을 꺾어 무덤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재스민혁명’의 시발이다. 이로 인해 튀니지는 물론 북 아프리카와 중동에 ‘재스민혁명’이 불꽃처럼 일어났고 결국 이집트의 ‘무바라크대통령’이 하야했으며 리비아를 42년간이나 통치했던 중동의 독재자 ‘카다피’

도 사살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지금 예멘과 시리아가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한 대학생이 이번 학기에 청강하는 과목의 과제를 풀기위해 설문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 페이스북 친구 200여명 중에 절반 정도인 100명의 답변을 받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하루만에 100명, 사흘만에 500명으로 늘어나더니 결국 페이스북에 올린지 6일만에 24만 명이나 찾았다고 한다. 이처럼 요즘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대다. 불과 6일 동안에 24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SNS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에게 전방위로 확산 되는 SNS는 한국에서 인터넷이 가질

9면으로 이어집니다.

모잠비크 잠베지江 미래의 땅을 가다

20여일 동안 모잠비크를 둘러 봤다. 아프리카에서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보려는 아들과의 동행이었다. 안가도 되는 일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없지만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코끼리 때도 만나지 않았고 악어나 사자한테 혼난 일도 없는 평범잡한 일상이었지만 새로운 것들은 많이 보였다.

모잠비크는 남아공 위쪽으로 인도양을 따라 남북으로 고구마처럼 길게 걸쳐 있는 나라다. 국토 면적 80만여 km²에 인구 2천여만 명의 모잠비크는 볼수록 혼란스럽고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많은 나라다. 초여름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지만 느낌은 상큼하며 밤에는 이불을 덮고도 추운 경험을 해야 했다. 마푸토 시내 벤피카 네거리는 내가 본 그 어느 도시보다도 혼잡했고 차와 사람이 뒤엉켜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거리에 늘어선 노점상들도 어지럽다.

물가도 어지럽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빵 한 줄 값과 시내버스 요금은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지만 휘발유 값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호텔비도 만만치 않다. 비즈니스용 중급호텔비가 하루에 미화120~150달러 정도이고 음식 값도 결코 싸지 않다.

생각이 있는 모잠비크 사람들은 젊은 이들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걱정하지만 맥주를 빼고는 모잠비크에서 생산한 술 종류를 보기가 쉽지 않다. 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들이었다. 농수산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관광객과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현지인들의 소득과 구매력 그리고 GDP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을 찾는 한국인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이 경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도 있다. 교민수도 늘어 현재 70~80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한국 식당도 두 군데가 성업 중이었다.

가난에 찌든 모습들이지만 모잠비크가 생동감 있게 변한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주택 건설현장도 자주 눈에 띄었고 여기저기서 고급 게스트 하우스가 신축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활기찬 레미콘 공장, 쉴 사이 없이 쌓이는 벽돌 더미도 그런 징후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의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다고 한다.

하루 일정을 잡아 마푸토에서 남서쪽으로 가까운 스와질란드 국경까지 드라이브하며 주변 경관을 둘러 봤다. 분지와 평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을 만날 수 있었고 목장과 농장 등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장의 규모나 소와 염소 등 방목되는 가축들의 숫자는 적었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LA 지국장
· 수필가



산불 연기가 곳곳에 보이는 잠베지강 평원.

다. 빈약하고 가난하다는 현실을 한눈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길가에서 보이는 산들은 대부분 채석장으로 마구 파헤쳐지고 있었다. 길가에는 연료로 쓰이는 팥감 나무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전을 일구려는 산에서 불에 타는 연기와 산불로 검어진 흙에서 자라는 옥수수 등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머잖아 황폐해지겠구나 하는 걱정을 해야 했다. 마푸토를 비롯한 남부지역은 모래흙이 많아 농업에는 적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북으로 가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빅토리아 호수로 이어지는 잠베지강이 짐바브웨를 가로질러 인도양으로 빠지는 중부 베이라 지역은 환상적인 농업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하루일정을 잡았다. 모잠비크 유일의 남북 횡단 도로를 달려 봤다. 몇 시간이 걸렸으나 강줄기를 몇 번 스친 것을 제외하면 별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

았다. 북쪽으로 달리며 주변의 변화를 일별하는 생각이었으나 바로 포기해야 했다. 처음부터 잠베지 강까지 볼 욕심은 내지 못했었다.

모잠비크 제2의 도시 베이리는 잠베지 강 하류의 인도양에 접해 있다. 남북 종단 도로와 기차 그리고 횡단도로가 연결된 교통의 요지이며 공항과 항구 시설을 갖춘 대도시다.

오래전에 마푸토에 정착한 한 동포는 농장과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400백만여 평의 토지를 확보하고 현지에 맞는 새 농업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나 땅이 척박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베이라 지역은 다르다. 사탕수수밭과 열대 밀림이 우거졌으며 강 하구 쪽은 드넓고 기름진 땅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어느 기관이나 누군가가 베이라 지역의 개발에 참여한다면 멋진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모잠비크 정부의 투자촉진 센터를 찾아봤다. 흑인 여자 공무원은 친절했고 자상했다. 베이라 지역이란 말을 하자 더 친절해지는 모습이였다.

땅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정부가 중점을 두는 4대 과제가 있다고 했다. 첫째가 농업개발. 둘째는 지역사회개발. 셋째로 잠베지 유역 개발. 넷째가 관광산업진흥이란단. 무지한 나로서는 네 가지가 모두 멋진 조건으로

보였다.

평소에 후진국 진출과 개발에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미래사회에는 식량과 물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란 주장에 공감을 했었고 다이아몬드나 석유자원에 대한 탐욕보다는 식량 개발이 훨씬 좋을 것이란 순진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잘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정신과 기법을 전수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도 했었기에 이 지역의 종합개발을 담당한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고 새마을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겠다는 멋대로의 생각도 해보는 것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지도를 응시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잠베지강에 욕심이 쏘였다. 그리고 중얼 거렸다. “여기야! 한국의 미래를 심을 땅이야!” 라고. 성질 급한 나는 모 기관의 간부인 지인과 통화했다. 멋진 정보 아니냐고. 그의 답은 간단했다. “억 만 평을 주겠다는 나라도 있었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탈해 졌다. 무지한 이의 엉뚱한 망상일 뿐인가 보다. 그러면서 1997년 아르헨티나 특파원으로 출발하기 전 회사 사장과 선배간부,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함께 송별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말이 떠올랐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쪽으로 500km쯤 가면 기후와 토양이 한반도와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 20만km²쯤 사서 이주희 망자를 모아 보내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벌써 아르헨티나에 농업이민 보내겠다고 땅을 마련했었다. 교포 사기꾼의 농간으로 너무 외지고 소금기가 많아 쓸모없는 땅을 사서 결국 엉망이 돼 버렸지만 말이다.

5천여 명이 진출했다는 중국의 성과는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마푸토 국제공항청사도 공짜로 지어주었고 마푸토와 만(灣) 건너편의 까팜베 사이의 바다를 잇는 다리도 건설해줄 거란다.

한국은 지금 정치와 선거 때문에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 없나? 그 땅에 한국의 미래를 심어 볼 선견자와 능력자 없나?” 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4]

8면에서 이어집니다.

수 있는 영향력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두 말할 것 없이 박원순 후보는 SNS에 의해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튀니지의 컴퓨터 공학도 죽음처럼 당국에서는 분신자살 사건을 통제했으나 인터넷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그의 죽음이 온 중동에 퍼져 나가 결국에는 ‘제스민혁명’이 유발된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트위터(Twitter) 사용자들에 의해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전에 저조했던 투표율을 오후 퇴근길에 끌어 올린 것이 바로 그 예다. 이로 인해 낮에 저조했던 투표율을 급상승 시켰고 결국은 예상을 깨는 투표율로 야권 단일후보인 무

소속의 박원순 후보를 당선 시킨 것이다. 이번 선거처럼 SNS가 보여주듯이 이제 앞으로 선거는 그 전처럼 안 된다.

지난 10월 5일 필자는 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과 한국광고공사 양 노조가 조 교수를 초청해 강의를 한 것이다. 조 교수는 시종 이 정부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잘못을 슬라이드와 함께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조교수는 “일주일 만에 2~3회 정도 오늘과 같은 강의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교수는 한 달 가까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한 셈이고 또 조교수 외에도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처음에 5%대의 박원순 후보가 안철수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 트위터 사용자들의 활약으로 서울 시장 선

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범(汎)야권의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은 53%, 한나라당 나경원후보의 득표율은 46%에 그쳐 격차는 7%포인트였다. 유권자수가 1,800만명인 서울·수도권에서 7%포인트 득표율 차는 투표율 70% 기준으로 90만 표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빅뱅’이 될 수 있다. 박 후보가 승리한 것은 야권단일 후보라는 점과 함께 무당파 층이 대거 쏠린 점도 크게 작용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고통이 몸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들은 정치권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한국적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무능·부패한 한국 정치

에 대한 탈정치의 움직임이 다른 아닌 안철수·박원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정치는 지역주의와 이념이라는 분열과 대립의 고질적인 중추구조 위에서 그 존립이 가능했다. 이제 그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국민은 어느 한쪽의 지역주의 아니면 둘 중 하나의 막다른 이념의 선택을 강요당해 왔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의 선거역사였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민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했다. 박원순 시민후보의 탄생은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한국의 정치는 이제 ‘제3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의 당선과 그 이후의 성패는 한국정치의 향방에 중대한 변수령이 될 것이다. [4]

격랑의 세월 속 활자 · 영상매체 섭렵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회우초대석

崔瑞

<41>

인터뷰 글 · 사진 이규

“격랑의 세월 속에 활자매체와 영상매체를 오가며 언론의 바다에서 40년간 비교적 순항한 셈이지요”

인생황혼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崔瑞泳(79) 회우의 첫 마디다. 그는 신문기자로 출발하여 경향신문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KBS 보도국장,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사장, 노원 케이블TV 사장을 거쳐 대학 강단에서 후진들을 지도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유유자적하게 지낸다. 말꼬리를 맡아 올리는 강원도 사투리와 강단 넘치는 작은 체구에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다.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회현동에 위치한 서울렉스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담채색으로 담백하게 풀어내는 인생역정을 들었다.

-내년이면 여든인데 정정 하십니까.

“지병은 없어도 80년 가까이 써 먹었으니 기계라도 낡을 때가 됐잖아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책이나 읽고, 오후에는 바둑을 두거나 헬스클럽에 나가며 친구들과 가끔씩 만나 담소를 나누고, 등산을 하거나 필드에 나가는 정도죠.”

헬스 · 등산으로 건강 유지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1960년 4·19 당시 서울신문 편집국 기자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점심을 먹으며 친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해가 庚子年이어서 모임도 ‘庚子會’로 이름 붙였어요. 초창기에는 36명이었으나 대부분 작고하고 이제는 10여 명 남았어요. 주로 나오는 분들은 본회 이해복 원로회우가 좌장격이고, 본회 회원인 신우식, 이순기, 민기, 이재주 회우와 동아일보 동우회장인 김광희씨 등입니다.”

또 다른 모임은 ‘三月會’. 1994년 케이블TV가 도입 될 당시 서울의 각 지구별 사장 출신들의 모임이라는 것. 매월 세 번째 월요일 만나 오찬을 하고 연말 망년회 때만 저녁에 만난다고 한다.

-언론계만 40년인데 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학(서울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4학년 때인 1957년 3월, 서울신문에서 기사를 모집한다기에 응시했고, 최종합격자는 나와 신우식, 신상현 3명이었죠. 서울신문 사사를 보니 견습4기생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그 시절엔 대학을 나와도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었어요. 상경대학을 나와도 은행 말고는 갈 곳이 없었고, 이공계대학을 졸업해도 공장이 없으니 직장을 구할 길이 없었지요. 요즘 청년 실업자가 많다고 하는 데 눈높이만 낮추면 일한 곳은 많잖아요.”

최 회우는 강릉상고 재학시절 문예반장을 맡아 교지를 만들었고, 대학 2학년 때 그의 시가 서울대 ‘대학신문상’ 최우수작으로 뽑히는 등 글 솜씨가 있어 신문기자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아 기자시험에 응시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공채기자, 복간 경향으로

-서울신문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은?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당시 고제경



노거수 은행나무처럼 언론현장을 지키며 한 시대를 풍미한 최서영 회우.

신문기자로 출발... 방송사 CEO로 언론생애 최초의 언론자유수호운동 주동... “요즘 기자

편집국장이 蔣介石 총통의 회상록을 주면서 번역하여 신문에 연재해 보라고 하더군요. ‘장개석 총통 회상록-중국 속의 소련’을 1면 좌측 내리단위로 53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 신문에 실린 최초의 내 작품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신문에서 경향신문으로 옮기게 된 계기는?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던 날, 전방부대 地對地미사일 시험발사 취재를 마치고 오니 사육이 시위대가 지른 불로 전소되어 신문을 발간할 수 없었어요. 귀중한 자료들이 불에 타 사라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애석한 일이지요. 4·19를 계기로 강제 폐간 됐던 경향신문이 복간 됐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로 옮겼습니다. 당시 宋元英 정치부장 밑에 鄭宗植, 李桓義, 李相舜, 尹錦子, 方一弘씨 등이 함께 일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로 잠시 옮겼던 배경

은?

“1963년은 軍政이 종식되고 民政이 시작되던 해, 조선일보 趙康中 정치부장의 스카우트제의를 받고 옮겼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 소유로 여당지일 수밖에 없었고, 경향신문도 장면 정권 탄생 이후 여당지로 변하여 옮겨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는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고, 조간신문에서 밤샘 취재는 비일비재 했다는 것. 몸이 허약해져 1년도 못 채우고 석간인 경향으로 다시 가게 됐다. 최 회우는 13년간 경향맨으로 근무하며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주일 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경향신문시절의 비화나 에피소드는?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가톨릭재단에서 이준구씨로, 다시 기아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편집 방향이 친 정부 쪽으로 기울자

편집국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1967년 초 제작거부사태가 발생하자 주동자로 몰려 徐東九 외신부장과 함께 파면을 당했지요. 편집권 독립운동은 유신 이후 조선, 동아 등에서 일어난 투위 사건 보다 8년이나 앞서 일어난 언론자유수호운동입니다. 파면조치가 부당하다는 편집국의 항의가 빗발치자 일주일 만에 복직되어 일본 특파원으로 파견됐어요. 일종의 귀양이었던 셈이죠. 또 1973년 남북조절위원회 평양회의 취재가 일선 취재로는 마지막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최 회우는 군 출입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월남에 문제가 있으면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취재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는 것. 경향시절, 도쿄대학 대학원 신문연구소에 1년 유학을 하기도 했다.

1973년 8월, 그는 활자 매체에서 영상매체인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

... 유유자적의 삶

류泳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
·전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시장
·전 한남대 초빙교수

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尹胃榮 당시 문공부장관의 권유 때문이다. 그해 KBS는 문공부 소속 중앙방송국에서 독립 공영조직으로 출범했다. 보도국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이룬 성과는 'KBS 기자들을 기자단에 가입시키는 일'이었다고 한다. 언론사 숙청의 회오리바람 속에 3000여명의 직원 중 10%가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 "정권 교체 뒤 사장이 바뀌는 등



최서영 회우가 1966년 여름, 베트남전쟁 취재 때 군복차림으로 맹호부대 사단본부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활 40년 마감 자정신 없어요”

새 정부 사람들로 물갈이 되어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아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한다. “방송생활 9년 동안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덧붙인다.

케이블TV 활착에 큰 기여
-그 뒤 영자신문으로 간 계기는?

“방송계를 떠나 1981년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전무로 갔어요. 영자신문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 만든 매체지만 살림살이를 맡고 보니 경영이 말이 아니게 열악했어요. 신문의 주 수입원이 광고인 데,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 영자신문에 기업들이 광고를 외면한 탓이죠.”

코리아헤럴드 소유주는 무역협회로 그동안 ‘내외경제’를 발행하여 코리아헤럴드의 적자를 메워왔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제지 복간에 혼신의 힘을 쏟

았다. 폐간 된지 9년 만에 내외경제는 복간됐으나 경기침체로 광고수주가 어렵고 구조조정도 노조의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1989년 말 경영권이 무역협회에서 대농그룹으로 바뀌면서 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경제지는 5개로 경영합리화를 이루기란 역부족이었다고 술회한다. CEO 임기 3년을 간신히 채운 뒤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사장자리에서 물러났다.

언론현장에서 물러난 뒤 1993년부터 6년 동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 방송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에서 쌓은 경륜을 펼쳤다. 방송과의 인연은 케이블TV 지상파로 연결됐고, 대농그룹이 경영권을 따 낸 노원구 케이블TV 사장으로 발탁됐다. 3년 동안 재직하며 초창기 케이블TV 활착에 공헌했다. 다양한 경륜과 폭넓은 인맥, 그리고 성실함이 높이 평가됐다.

언론계에 발 디딘지 만 40년이 되는 1997년 언론계를 은퇴했다. 최 회우는 남북조(南北朝)시대 북주(北周)의 문인 유신(庾信)의 시구 ‘음수사원(飲水思源)’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듯’ 근본은 잃지 않았고, “언론인생 40년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밝힌다.

-언론계 은퇴 후 대학 강단에 섰지요?
“대전 한남대학교 초빙교수로 1999년부터 3년 동안 신문과 방송매체의 체험적 실무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강의 노트를 토대로 ‘한국의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북스, 2002)을 펴냈다. 지난 2009년에는 자서전 격인 ‘한 언론인의 비망록-내가 본 현장 여울목 풍경’(선)을 출간하기도 했다.

“기자 공채방식 보완해야”
-우리언론에 영향을 끼친 대기자와 대논객으로 누구를 꼽으시나요?

“저는 洪鍾仁, 吳宗植, 崔錫采 세분을 꼽습니다. 우리언론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죠. 특히 ‘洪博’으로 통했던 홍종인 선생은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언론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초인적인 노력과였죠. 8·15 광복 후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 주필, 회장 등을 거친 야전형 언론인이죠. 어느 신문이든 눈에 거슬리는 기사나 글이 발견되면 전화를 걸어 ‘글 좀 똑바로 써라’고 호통칠 정도였지요.”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시절, 국회를 출입했던 최 회우는 태평로에 있던 옛 국회의사당에 날씨가 굳어 잠바 차림으로 취재를 나갔다. 기자실에서 스피커로 들려오는 의원 발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홍박’이 불쑥 나타났다. 그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일선 취재현장에 나타나 후배들 현장교육(?) 시키는 것을 즐겨했다. “최 군 복장이 그게 뭔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자라는 직업은 언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만큼 복장은 정갈하게, 예의는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게 ‘홍박’의 지론이었다고 소개한다.

오종식 선생은 한국 언론에 인문학적 문명비평론을 도입하여 저널리즘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고, 최석재

언론가 소식

한국언론진흥재단 SNS 긴급토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11월 28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SNS를 통한 루머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석(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 회장)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김대희(KBS 보도국 인터넷뉴스 주간), 김민배(조선일보 뉴미디어실장), 김택환(중앙일보 부국장),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정기(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관훈클럽 2011년도 정기총회

관훈클럽(총무 정병진)은 오는 12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김인규 사장 ABU 회장 피선

김인규(KBS 사장·분회 회우) = 지난 11월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 48차 ABU(The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총회에서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제 13대 ABU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인규 신임 ABU 회장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3년 임기 동안 ABU의 방송 정책 수립과 사무국 인사, 프로그램 공동 제작과 뉴스 교환, 기술·스포츠 교류와 협력 등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번 김인규 KBS사장의 ABU회장 선



선생은 대쪽 같은 선비정신으로 정론을 편 분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수습기자 공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공개시험을 통해 뽑는 제도는 종전의 추천제가 지녔던 약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는 개혁적이지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인 평가는 기자 공채의 장점이죠.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지요. 가장 큰 병폐는 언론사의 인적교류가 차단되다시피 된 것이죠. 언론은 어느 직종 보다 자유로운 경쟁과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어야 할 업종이기에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방면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야하는 데,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신문과 방송할 것 없이 수습출신 기사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진정한 자유경쟁을 막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가 봉쇄된 탓으로 기자들의 위상은 ‘무관의 제왕’에서 ‘월급쟁이’로 곤두박질치고 언론사 오너의 총복으로 타락해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듯이 연도별로 수습기자를 채용하다보니 대기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고 한다.

출은 KBS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김인규 KBS 사장은 취임 이후 미래 비전의 하나로 ‘글로벌 KBS’를 제시하고 한류의 확산과 KBS의 조직과 인력, 프로그램의 국제화에 힘써왔다.

김인규 KBS사장은 ABU회장 당선으로 향후 KBS와 한국방송사가 아시아 태평양지역 방송발전을 주도하게 된 것은 물론 한류와 KBS 프로그램의 보급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ABU 회장 수락 연설에서 미래 정책 비전으로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 북한 등 빈곤한 저개발국에 대한 런던 올림픽등 주요 국제스포츠의 중계권 지원, 다큐멘터리와 뉴스 등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과 무료 교환 활성화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원로 언론인 권오기씨 별세

동아일보 사장과 통일부총리를 지낸 권오기 씨가 11월 3일 오전 4시30분 별세했다. 향년 78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인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주필 부사장을 거쳐 1993년 사장을 지냈다. 1995년 제23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취임해 대북 정책을 이끌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영주 씨와 미원(캘리포니아주립대교수)·소원(작가)·성혁(작가) 씨가 있다. 장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고인의 빈소에서 동아일보 사장(社葬)으로 치러졌다. [국문]



-대안은 무엇입니까?

“미국 언론사들은 필요한 인원을 수시로 채용합니다. 기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언론사 편집장에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자기가 쓴 샘플 기사 5~6건을 보내면 서류심사를 거쳐 인터뷰 등 개별적으로 시험 절차를 거쳐 뽑아요. 채용 정보는 미국 편집인협회가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취업박람회를 열어 알선해 줍니다. 말하자면 추천제와 시험제를 혼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경우 공채방법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채용한 뒤에는 지방지사로 발령을 내고, 몇 년에 걸쳐 활동 상황을 체크 한 뒤 인사사고파에 따라 자질이 인정되면 본사로 발령 내는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요즘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똑똑하지만 기자정신이 없습니다.” 짧지만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자유분방하게 한 시대를 풍미한 노 기자의 눈에 비친 후배기자들의 셀러리맨화, 관료화가 안타깝다는 것. 술은 원래 잘 못하는 편이고, 담배는 골초였으나 20여년 전 가래가 심해 끊었다고 한다. 회혼을 1년 앞둔 부인 한정희 여사(76)와의 사이에 1남 4녀. 외아들 정욱(52)씨는 국민대교수. [국문]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다는 이유는 이 글이 한국의 의료계, 곧 의사들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그게 아니라 의료계의 반성을 위해 쓴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다.

2008년 1월22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석동 칼럼-아내가 떠난 뒤’를 얼마 전 후배가 떠다준 복사물로 읽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 남자(남편과 두 아들)만 남겨두고 유방암 오진으로 이승을 하직한 아내”를 기리는 그의 글은 구구절절 가슴을 친다. 유방에 암이 도사린 사실을 유명한 유방 전문클리닉 원장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불치(不治)가 되어 불귀(不歸)의 객(客)이 된 아내를 애끓는 마음으로 기리는 한석동 칼럼은 항상 어디서나 있을수 있는 오진에 의해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가정의 풍비박산이 된 사연을 드러낸다. 그는 말한다.

“실수는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멸정한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도 변함없이 돈벌이에 바쁜 의사와 의료 풍토는 용서 할 수 없다.”

용서하기 어려운 일은 항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한석동 칼럼은 또 한건의 중대한 오진을 예증(例證)으로 들고 있다. 이웃아저씨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2년전 서울의 일류병원에서 ‘치명적인 암’ 진단과 함께 곧 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거액의 보화를 탔다. 그건 행운이었지만 어차피 오래 못 살 것이라는 판정에 그는 절망했다. 수술 흉터가 아물었을 무렵 그는 그냥 한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일본의 한 병원을 찾아갔다. 행거간 진료데이터를 분석한 그곳 의료진은 놀라게도 암이 아니라고 했다. 기가 차서 자빠질 이런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넘어온 엑스레이 필름을 잘 못보고 멸정한 사람의 배를 가르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류병원에서 벌어진 일도 있다.

3년 전 부산에 사는 나의 조카(누님의 딸)가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아래 수술을 받았는데 환부는 그냥 두고 멸정한 부위를 덜어낸 일이 있다. 조카의 전화를 받고 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걸 그냥 두다니...” 대답이 “외삼촌 큰 병원과 싸울수가 없어요, 전문 변호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과받고 재수술로 환부를 돌려냈으니 괜찮겠지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갈데없이 의료소송감이고 병원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다. 의사들에겐 “참으로 우리나라 존 나라”다.

“2002년~2006년 국가 암검진을 분석한 결과 암은 발견한 것 보다 놓친 게 더 많다”고 전한다. 검진을 통해 19,086건을 찾았으나 20,609건은 1년 내 조직검사로 알아냈다고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⑭

의료환경과 환자의 자구책

한다. 오진의 최다 건수는 유방암으로 5,914건이나 된다.

유럽 종합암회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암 환자는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급증해서 연간 신규 암 환자 수가 2,7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암 치료 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절멸(絶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이 치료(heal)에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도 알았으면 좋으련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이 국가 사업으로 영양과 질병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맥거번 보고서가 그 한 예증이다. 병을 병이 아닌 미병(未病)의 상태에서 고치는 게 상선(上善), 곧 성(聖)의 경지라는 설

는 사람’을 만들어내려던 케이스를 나는 여러 건 알고 있으나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끝이 없다.

환자의 이야기(호소)를 잘 듣지 않으려는 의사는 환자 쪽에서 기피하는 게 상책이다.

국내 첫 ‘의료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받은 이현석씨는 “환자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가 명의라고 했다. 의사는 환자의 삶과 인간관계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진(回診)할 때 의자에 앉아 환자와 대면해서 그의 아픈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환자가 좋은 의사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왔다.

미국 버지니아텍 의대처럼 한국에서도 의대생을 뽑을 때 인성(人性)을 중시하는 다중미니면접(Multifaceted Mini Interview)을 도입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7월15일 중앙일보). 기술만 있고 인성이 의사답지 않은 의사가 흔하다는 반증이다. 밝은 눈을 가졌더라도 냉정한 가슴을 가진 의사는 부적격 의사라는 이야기가 된다. 교과과정으로 삼아도 좋을 가슴 따뜻한 명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옛날에는 그런 힐러들이 있었다. 병실의 창문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경우와 창문이 건물의 벽으로 막

힌 병실의 환자의 회복속도는 전자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마음이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남에는 토목업자가 만든 것과 제조업자가 만든 두개의 거대한 병원이 있다. 신문기자들은 토목업자가 만든 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술실적이 많고, 미국에서 4시간 걸리는 수술을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쓴 적이 있다.

수많은 수술건수와 빨리 해내는 수술시간의 그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본 일이 있는가? 많고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생사유명(生死有命), 삶과 죽음이 천명(天命)에 있는가? 삶과 죽음이 사람손에 달린 것이 병원이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사의 기술과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의사들은 하루에 한번은 되뇌이어야 아픈 사람이 편하지 않겠나.

제목에 ‘환자의 자구책’이라고 썼었으나 깊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의 자구책이 있는가. 없다. 의사가 어떤 치료행위를 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유전자에 각인(刻印)되어 있는 정보(프로그램)대로 일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이지만 내 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수밖에 판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 써온 건강정보는 그러한 삶을 위한 귀찮 정도로 불일이다. ㉞

‘기술’보다 가슴 따뜻한名医 찾아야

滅)하지는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암은 지척에 있다. 암 예방 정보가 더 정밀하게 수시로 알려질 필요가 있다. 암 예방에 관한 일은 한 독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적인 책무라 해야 할 것이다.

암 환자의 치료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는 지면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잔인하고 참담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옛 중국의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옛 명의(名醫)는 사람을 살리고, 어설픈 용의(庸醫)는 사람을 죽인다. 지금의 용의는 사람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한다”고 했으나 그건 옛날이야기지 지금의 용의는 앓는 사람도 죽게 하고 멸정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흉한(兇漢)에 다름 아니다.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고서는 명의가 될 수 없겠지만 기술만으로는 명의가 될 수 없다. 아픈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병을 고치려는 성심(誠心)이 없고서는 어찌 명의라 할 것인가. 측은한 마음은 어진 인(仁)의 단초다. 지금의 의과대학 교과과정에는 윤리학도 예방학도 영양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 나이가 고통을 없애려는 그 성심은 사랑에 다름 아니다.

신약성서, 그 속의 예수의 길을 읽어보면 그 행로는 힐러(healer·치료자)의 행적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성(holy)의 어원

(說)이 한의학(漢醫學)의 바이블이라는 황제내경(黃帝內經)에 적혀있다. 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의사를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1시간대기 3분 진료, 의사는 침묵을 최선으로 알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옛날에는 환자를 관찰로써 그 병을 헤아리는 망진(望診)과 환자의 호소(이야기)를 듣고 진찰하는 문진(問診), 쓰다듬고 만져보아 이는 촉진(觸診)이 삼대(三大)진찰방법이었으나 지금은 삼진(三診)이 다 없어지고 비싸고 더러는 유해할 수도 있는 엑스선, 방사선을 아우른 기계진찰이 의사의 전문몰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합부러 칼(메스)을 드는 경우가 있다. 오진(誤診)에 의해 외과 수술을 감행하는 일이 그런 경우다. 일본의 1백세 현역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는 그의 저서속에서 의사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수술하는 환자가 당신의 자식이거나 아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사리 메스를 들 수 있겠나”하고 반문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자연요법(통합)의사 앤드류 웨일은 예술로 불릴만큼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외과 수술을 찬양하는 반면 그 남용, 오용, 나아가 불필요한 외과수술을 감행하는 과감한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다. 무용의 수술 더러는 답답, 편도, 충수(맹장), 자궁을 쉽사리 덜어내는 외과의사에 대해 “그 짓은 인체에의 모독”이라 나무라고 있다. ‘쓸개 없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농협 50년

[같이] 바라고
[같이] 꿈꾸고
[같이] 해냈습니다



농협의 새로운 출발, 대한민국의 미래와 [같이]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두가 꿈꿔왔던 농협의 변화, 전문화된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의가치 NH  농협

溫故知新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하락의 원인은 '한국인의 과도한 자의식'이란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중국 매체 환구망이 자국의 넷 이용자 6800여 명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9%가 '한국식 역사관'을 꼽았고, 24.4%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꼽았다고 한다.

환구망은 중국인이 한국식 역사관을 문제 삼는 이유는 한국이 (중국에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단오절에 대해 '한국이 기원'이라며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록시키고, 일부 한국인들이 중국사에 등장하는 유명인에 대해 한국기원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중국인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은 아직도 중화제일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는 중국의 변방사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이는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가 모두 중국 땅인 만주에 있었으니 모두가 중국의 역사라는 말도 된다. 중국의 '역사지도집'에는 만리장성의 동단이 황해도 수안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다.

요하 유역과 발해만 일대, 만주는 고조선문명의 발상지로 한민족사의 요람이었다. 고조선에 이어 부여·고구려·발해가 차례로 일어난 우리 고대사의 중심지였다. 역사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구려·발해사 탈취도 모자라 이제는 동북아 고대문화 전체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문명사의 강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2002~2006년)에 이어 2003년부터 시작된 탐원공정(探源工程)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뿌리인 요하발해만문명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화했다. 중국학계는 이 공정을 통해 "고구려 민족은 기원전 1600~1300년에 은상씨족(殷商氏族)에서 분리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고구려가 중국 고대 국가인 상나라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중국이 한국고대사를 탈취하려는 이유는 사실 다른데 있다. 그동안 중국사는 황하 유역의 신석기·청동기문화, 곧 황하문명설이 주류로 자리잡아왔었다. 그러나 근래 요하 유역에서 기원전

7000~1500년의 신석기·청동기 유적이 대거 발굴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비파형청동검·돌무덤 등 한국고대사의 특징인 유물·유적이 대거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학계와 정부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한 것은 기원전 1700~1100년대의 은허(殷墟) 유적보다 훨씬 오래된 갑골문(甲骨文)이 바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사실이다. 이는 고조선의 요하발해만문명이 중국의 황하문명보다 훨씬 더 앞섰다는 움직일 수 없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단대공정·동북공정·탐원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발해사뿐 아니라 고조선사, 즉 한국 문명사의 기원(起源)까지 강탈하려는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 이제는 "중국 문명은 황하문명뿐만 아니라 요하 유역의 동북문명이 합쳐진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비뚤어진 한국역사관은 뿌리가 깊다.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이 중국에 조공(朝貢)을 바치고 책봉(冊封)을 받았던 과거의 속국"이었다는 인식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다. 옛날에는 조공·책봉이 일종의 외교관계였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는 한국이 단오를 명절로 삼고 있지만, 한국의 가장 오래된 노래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분위기가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의 '초사(楚辭)'와 비슷하다면서 한민족문화의 뿌리가 초나라라는 궤변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영화 '신화(神話)'에는 고조선의 공주가 진

중국인이 보는 '한국식 역사관'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시황(秦始皇)의 후궁으로 끌려가는 대목이 나온다. 만주와 한반도 전체를 아울렀던 대제국 고조선이 진시황이 두려워 공주를 후궁으로 바쳤다는 기록은 양국 역사서 어디에도 없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북쪽의 흉노와 더불어 동쪽의 고조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결국 이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주변국은 모두 오랑

캐라는 오만방자한 중화사상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시각, 뒤틀린 역사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어도 불구하고 우리 사학계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산도 활동도 너무나 미약하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숨어 중국의 역사왜곡과 강탈에 앞장서는 민족사의 반역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일부 사학자는 "한국사의 뿌리와 정통성은 신라에 있고, 고구려는 희미한 핏줄의 기록이며, 발해사는 말갈의 역사일 뿐"이라는, 해괴한 궤변 망언을 학설이랍시고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따위 괴상아릇한 이론(異論)을 만들어내고 주장함으로써 이들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꿀 같지도 않은 헛된 명성뿐이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만 학자에게는 국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해서도 한국의 사학자로 행세하겠다는 것인가. 그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비학문적' 주장은 학설이라기보다는 민족사

의 자살론이다. 이들이 주장하려는 의도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민족사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민족사에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야말로 조상을 부정하고 뿌리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작태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된 이후, 그 무슨 학문의 객관성이니 하는 연막을 피우며 만주의 고조선과 고구려사를 중국사 한국사 구분하지 말고 요동사로 부르자는 주장을 하고 나온 이상한 사학자도 있었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는 정당했고, 안중근(安重根)은 테러범에 불과했으며, 김좌진(金佐鎭)·홍범도(洪範圖) 등 의병장들은 산적두목에 불과했다는 정신이상자도 있었다.

한국사의 뿌리는 신라가 아니라 고조선이요 단군왕검이다.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고조선에서 갈라져 나온 부여의 역사,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의 역사,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의 역사, 이 두 나라와 신라를 통합하여 세운 고려의 역사를 부정하는 만행(蠻行)이다. 나아가 고조선의 유민이 세운 신라와, 고려를 계승한 조선의 역사까지 부정하는 셈이니 결국은 한국사는 없다는 악성 궤변에 다름 아니다. 이야말로 민족사에 대한 테러요 한국사의 자살행위다. 뿌리 없는 민족이 없고 조상 없는 후손이 있는가.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친북·반미에 앞장서는 일부 좌경 지식인들은 어찌하여 중국의 한국고대사 강탈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가.

고구려·발해의 역사에 이어 백제와 고려사도 중국의 변방사가 되어 버리고, 동명성왕(東明聖王)·온조대왕(溫祚大王)·광개토대왕(廣開土太王)·근초고대왕(近肖古大王)·을지문덕(乙支文德)·연개소문(淵蓋蘇文)·계백(階伯)·대조영(大祚榮)·장문휴(張文休)·왕건(王建)·강감찬(姜邯贊)·윤관(尹瓘)·최영(崔瑩) 같은 한국사의 영웅호걸이 모두 중국인으로 둔갑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국의 역사공정, 더 이상 두고 보기 만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분쇄해야 한다. [국문]

회우들이 펴낸 新刊

전민조 회우 (전 동아일보 출판국 사 진부장·상명대 겸임교수)가 '워홀에서 히틀러 까지 688명이 말한 사진-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를 펴냈다. 사진가, 영화배우, 정치인, 디자이너, 작가, 비평가...

로버트 카파, 클린트 이스트우드, 체 게바라, 빌게이츠, 파블로 피카소...

사진을 예찬하고, 저주하고, 사랑하고, 비꼬았던 그들 사진의 핵심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언어들 688인의 말·말·말을 모았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는

전민조 회우 "사진이 모든 것을..."

700명 가까운 사람들(688명)이 1,000여 가지가 넘는 사진에 대해 무엇인가 말한 내용을 담았다. 책 한권에서, 신문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그야말로 일상에 예고 없이 마주했던 작은 만남들을 모은 것이다. 고서 수집가의 눈이 수북하게 버려진 헌책 더미 가운데서 날카롭게 보물을 찾아내듯, 우리가 흘려버리고 있던 사진에 대한 술한 이야기들

이 그의 포충망에 걸려 조심스레 이 책의 원고로 고정되었다.

독자들은 이 말들의 성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진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기능과 의미를 되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

<480쪽·값 2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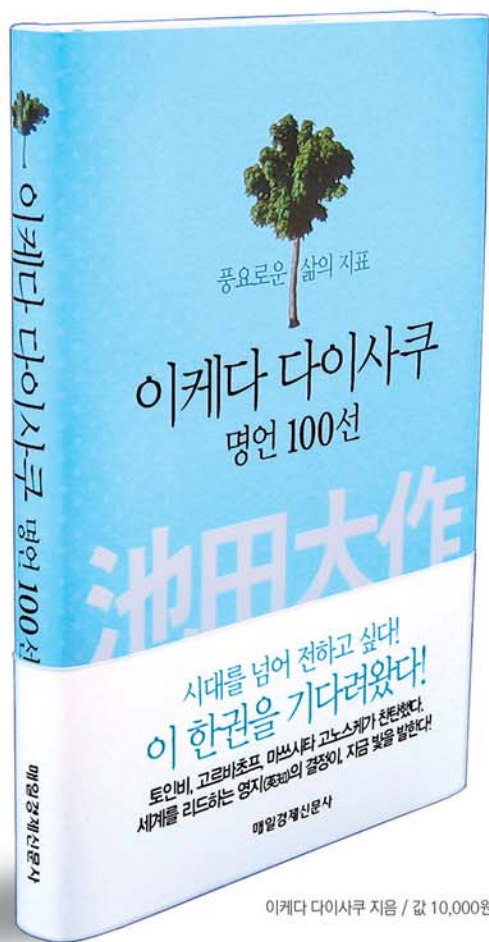


이케다 다이사쿠 명언 100선

한마디 말에 담긴 강한 생명의 울림!

20세기 최고 석학 '토인비',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찬탄한 '이케다 다이사쿠', 그의 시집 · 수필 · 소설 · 스피치 · 대담집 등 400여 권에서 엄선한 100가지 명언!!

“인생의 선배들, 그중에서도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힘에 부치는 고단한 삶 속에서 깨달은 것도 있고,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 **희망**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희망만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출발이자 영원한 시작이다.
- * **용기** 인생의 승리는 모두 용기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좌절하지 않는 용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용기……. 용기만이 벽을 부술 수 있다.
- * **일** 사회의 터전에서 일으키는 투쟁에는 신용을 얼마나 쌓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과 성의, 진심밖에 없다.
- * **정의** 참된 정의는 민중의 행복이고 평화여야 마땅하다. 어떠한 대의(大義)가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불행한 사람이 생긴다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生活斷想

年末에 오는 年賀狀

연하장 문화는 한자(漢字)문화권인 동아시아 일대에 정착한 마음을 이으며 예를 차리는 문화이다. 새해 인사를 몸소 빚지 않고도 서한으로 대신할 수 있어 널리 보급된 것 같다.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그 위세는 일본이 으뜸이고, 한국 중국 대만등은 도토리 키 건주기이다. 구미(歐美)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로 신년 인사를 하므로 연하장 문화란 거의 없다.

연하장은 받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것이 주는 감화와 즐거움은 달라진다. 바쁜 세밀 잡동사니 우편물에 끼여오는 연하장은 푸대접 받기 일쑤이고, 이국 댁 새가 뻔 다다미(畳)방에서 받아보는 연하장은 그 정취가 다르다. 연하장은 신년인사가 담긴것인 만큼 새해 아침에 받아보는 것이 좋으려만 그게 그렇지못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조정에서 영의정(領議政)이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임금에게 새해 문안을 드리면서 신년하례(賀禮)의 글이 적힌 전문(箋文)을 올렸다. 팔도의 관찰사, 고을의 목사도 빠지지 않고 전문을 바쳤는데 이것이 연하장의 유래라고 '동국세시기'는 전하고 있다. 2000년에 발족한 우정(郵政)사업본부는 매년 세밀이면 다음해의 띠와 신년풍습 민속화등을 인쇄한 연하장을 팔고 있다.

중국에서는 옛날 상층사회의 사대부(士大夫)간에 신년인사가 적힌 명첩(名帖·명함)을 교환했고, 서민은 새해인사로 매화전(梅花箋)이란 쪽지를 인편으로 보낸 것이 연하장의 유래라고 송(宋)시대의 '청파집지'는 주석을 달고있다.

지나치게 인사성이 바른 일본사람들은 19세기말 부터 친지간에 연하장을 주고받는 것을 연말연시의 행사로 정착시켜왔다. 전쟁때 한동안은 자숙했으나 전후인 1949년 부터는 번호 추첨으로 '오도시 다마(御年玉·새해선물)'가 맞는 연하(年賀)엽서를 일본우정공사가 발행하였고, 2005년판은 43억5천만장이나 팔렸다. 2010년에 집계한 일본사람 1인당 연하우편 소비량은 경영자가 178통 회사원이 52통 주부가 49통 학생이 16통으로, '연하장 천국'이란 말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고도(高度)경제성장기에 일본의 문을 열고 들어간 내가 첫 번째 맞은 신년은 1976년의 원단(元旦)이었다. '엑스포70'이란 일본만국(萬國)박람회를 대성공리에 마친 오사카(大阪)는 그야말로 별천지 같았다. 박람회 협회장 이시사카(石坂泰三)씨가 말한 "일본은 세계위에 책상다리로 앉게 됐다"는 것 그대로였다.

선달 그믐날의 현란한 제야의 불꽃놀이, NHK의 호화판 노래자랑인 흥백전, 그리고 귤전을 사라질 듯 감도는 전국 사찰의 은은한 종소리의 여음... 흥에 취해 늦잠 들어 설날의 아침에는 중천이었다. 부스스 일어나 신문을 가지러 현관으로 갔다. 포스트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신문과 연하장이 잔뜩 물려있다. 안에서는 도저히 빼낼수가 없어 현관문 밖으로 나가 되빼내야했다. 연하장의 대 홍수였다.



김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그동안 친해진 사람, 누군인지 모르지만 직책상 보내온 것등 연하장 삼십여통이 종이 끈에 묶여 배달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산가니치'(三箇日)라 하여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쉬고 4일부터 일을 시작한다. 새해 문을 연 신문의 내책상위에 쌓인 연하장은 집으로 온 수를 훨씬 넘었다. 이렇게 많은 연하장을 무슨 수로 다루는지 궁금증이 났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전해 12월 초순, 귀가길에 본 동네 우편국 앞에 나붙은 대형 광고 내용이 떠올랐다. "우리지역 연하장은 우리손으로! 학생 젊은이의 연말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으로 연하우편물 배달원을 모집하는 문구였다.

전국의 우편국은 12월15일 부터 28일까지 '연하특별우편물'을 취급한다. 모든 우편포스트에 연하장전용 투입구를 설치하고 '연하'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한 우편물은 모두 모아서 다음해 1월1일까지 관할 배달사무소에 유치한다. 여기서 각 가정별로 구분된 연하우편물은 묶음이 되어 새해 아침 아르바이트 배달원에 의해 전국 일제히 동시 배달된다.

"동네 젊은이와 학생들이 매년 연하장 배달에 참가해 이제 그것은 그네들의 연례행사로 정착했고, 아르바이트로는 모자(母子)가정에 회사하는등 지역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우편국 직원의 설명이었다.

나는 나이를 먹을만큼 먹은탓인지 가끔 귀소(歸巢)의 본능에 이끌려, 제집 찾는 호랑이처럼 2007년에 영주귀국을 했다. 그해 세밀, 다음해인 2008년의 연하장 봉치를 들고 동네 우체국엘 갔었다. 외국에 가는편과 국내편을 따로따로 가르고, "새해 정월 초하루 아침에 배달토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창구의 여직원은 '.....? 이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하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오늘 부치면 모레나 글피즘 배달 될걸요."

연하장이 연말에 배달된다는 설명이다. 받는사람은 어떤 기분으로 받을까? 보내는 사람은 본의 아닌 실례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고... 참으로 난감했다.

아닌게 아니라 연말이 되자 심심찮게 새해 연하장이 매일 날개로 배달되어왔다. 연하장을 받으면 서로가 새해를 축하하고 장수를 빌며, 책력을 뒤져 제 나이를 셈하고 남아있을 날수를 가늠해 보기도 하는데, 연령 계산을 매일 하게되다보니 나도 모르게 헛갈려 금세 1백살을 넘기기도 하고... 실로 가소로운 짓이다. 연하장만은 정월 초하루 한꺼번에 받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초의 아르바이트 배달 같은 것은 치사하고, 내동네를 찾아온 연하장쯤 묵거내맡겨나 나몰라라 하는 세상이 되었나보다.

세월(歲月)에서 나이를 자아내는 물레가 돈다. 회고 기다란 나이는 잇달아 뽑혀 나온다. 광주리에 싸인 흰 나이는 연하장에 실려오고, 기다란 나이는 책력 속에서 다음을 기다린다. [필자]

동홍석 원로회우 별세

동홍석 원로회우가 지난 11월 14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26년 3월 21일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여 함흥농업학교 동양외국어전문학교 중어과를 수료한 뒤 월남하여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언론계에는 1953년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경부 조사부기자를 거쳐 동아일보 조사부기자, 대한일보 조사부장 출판부장을 역임했다. 동홍석 원로회우는 특히 대한언론인회 전신인

47구락부 창립회원으로 대한언론인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 할때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장으로, 이어 부회장, 감사를 역임하는등 대한언론인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고

인의 빈소에서 흥원기 회장을 비롯, 이혜복고문, 김은구 상담역, 정기정 부회장, 정운종 상임이사, 안현태 한영탁 회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가졌다.

弔辭 대한언론인회 산파역, 큰 공적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존경하는 동홍석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비보를 듣고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삼가 명복을 빌며 졸지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언론계에 투신한 이래 우리 대한언론인회와는 참으로 각



조사를 읽는 흥원기 회장.

별한 인연을 맺어오셨습니다. 대한언론인회가 1977년 퇴직 언론인모임인 47구락부로 출발할 당시 몸소 온갖 꺾은일을 도맡아 하신 일은 오늘의 대한언론인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언론인회의 전신인 47언론인회에서 재정운영위원과 사무국장을 맡아 대한언론인회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셨고 대한언론인회가 1986년 사단법인으로 법인등록을 마칠 때는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활약하시는 등 대한언론인회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오셨습니다. 그 후 총무이사 부회장 감사직을 두루 거치치면서 선생님이 남기신 업적은 바로 대한언론인회의 산 역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953년 경향신문에 들어가서서 편집부 정경부 조사부 기자로 당시 어려웠던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셨으며 1961년 동아일보 조사부에서, 다시 1966년에는 대한일보 조사부장 겸 출판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언론계에 많은 공헌을 남기셨습니다. 이렇듯 언론계에 공이 많으신 선생님의 타계는 우리 언론계의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후진들은 선생님이 대한언론인회를 위해 남기신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홍석 선생님! 이승에서의 모든 번민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필자]

아차산에서 送年山行

본회 산악회 12월29일 오전 10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는 신묘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산행을 아래와 같이 서울 근교에 자리한 아차산에서 갖습니다. 서울시와 구리시에 걸쳐 있는 아차산은 해발 286m의 야트막한 산으로 삼국시대의 전략요충지로서 곳곳에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번 아차산 산행은 새 집행부 구성 후 처음 갖는 산행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산 행 지 : 아차산

산행일시 : 2011년 12월 29일(목요일) 오전 10시

집합장소 : 광나루역 1번 출구(전철 5호선)

회 비 : 1만원

준 비 물 : 식수, 동계등산장비

연락문의 : 정운종회장(010-7276-6211) : 나용경총무(010-2691-0084)

*산행 후 아차산역 용두삼겹살쪄꾸미 식당(아차산역 1번 출구 하나은행 옆·전화 02-457-7710)에서 뒤풀이 모임이 있습니다. 산행이 여의치 않은 회우는 뒤풀이 장소로 낮 12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산악회 카페 개설

지난 11월 20일 제반 산악정보와 회우간의 교류를 위해 산악회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수많은 정보와 산악회 소식 등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대한언론인산악회 카페'를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카페주소http://cafe.daum.net/kjaclub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당신을 위한 자동차를 생각합니다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기술, 현대모비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기술이 보입니다



driving science



회우동정

(가나다순)

‘민주평통위원의 역할’ 주제로 특강



곽찬호(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 원로회우=11월 17일 오전 9시 민주평통 광진구 협의회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민주평통위원의 사명과 역할’ 주제로 특강.

‘죽음을 잘 준비하자’ 특강



김현(방송인·여행전문가)회우=11월 8일(화) 오후 5시 명동성당 구내 코스트 홀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우정축구회 창단 1주년 초청경기 주관



박명근(전 강릉 MBC 속초지사장)복지기금위원장=11월 23일 우정축구회(속초지역 72년 초등학교 입학 동기생으로 구성된 모임)고문으로 이 모임 창단 1주년 기념식 및 연예인 팀 초청경기를 주관.

‘한국일보와 백상을 말한다’ 인터뷰



손일근(전 한국일보 고문)회우=한국일보사우회 ‘한우회보’ 제5호(2011년 11월 14일 발행) 4면 ‘한국일보와 백상을 말한다.’ 인터뷰.

UCC & SNS 전문가 3급 자격증



이보길(독도시사신문 논설위원장·본보 편집위원)회우=지난달 클린미디어 교육진흥원(이사장 최창섭)에서 실시하는 UCC(동영상 제작)와 SNS(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SNS 전문가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향OB산악회15주년 공로패 받아



이상호(전문화일보 편집위원·사진상)·지용우(전 경향신문 논설실장·사진상)회우=지난 11월 3일 동해시 두타산 용추폭포에서 거행된 경향신문OB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산악회 창립(지용우)과 카페개설 운영(이상호)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한일 경제 협력의 전망’ 강연회 개최



정구중(한일 미래포럼 대표)회우=12월 6일 오후 6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19층 세미나실에서 ‘세계와 한일경제협력의 전망’ 주제로 강연회 개최.

주소·전화번호 변경

김용구 회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노블카운티 A동 502호
(우 446-930) 031-208-9171

이철 회우 = 010-3759-6077

전의식 회우 = 010-3277-9183

최희조 회우 =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한강대우아파트 110동 801호(우140-713)
02-792-0742

회우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구중서 회우= ‘현대전의 구조’ (번역판·1976년), ‘고르바초프’ (번역판·1985년) ‘구중서 언론집 민족과 세계’(1988년), ‘동양적 전제주의’ (번역판·1991년) ‘구중서 언론집 이성과 함성’(1993년), ‘격변하는 세계 도전하는 한국’(1994년), ‘세계의 정복자 대징기스칸’ 1.2.3.4권(2007년), ‘항몽전쟁’ 1.2.3권(2007년), ‘강화도 붉은 아리랑’(2008년) ‘손돌장군과 임금님’(2008년), ‘징기스칸에 관한 모든 지식’(2011년)

김진배 회우= ‘김진배 칼럼 당신들의 아픔’(1978년), ‘가인 김병로’(1983년), ‘김대중 수난사 인동초의 새벽’(1987년), ‘김진배 정치칼럼 땅덩어리굴러가는 소리’(1992년), ‘김진배 인물연구 사람을 알고 사람을 말하라’(1992년), ‘속 인물연구 사람을 알고 사람을 말하라’(1993년)

유한준 회우= ‘한국어린이 문화운동 100년’(2007년), ‘국화꽃향기’(2009년)

송년 바둑대회 성료

본회 기우회, 정기정·이성호 회우 우승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 2011 송년바둑대회(사진)가 11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 종로2가 바둑세계기원에서 열렸다. 16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A조(1-3급)와 B조(4급 이하)로 나뉘어 열전을 벌였는데 A조에서는 우승 정기정, 준우승 문준호, 3위 이시현 회원이, B조에서는 우승 이성호, 준우승 박영길, 3위 김세경 회원이 차지했다.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모임답게 대회는 저녁 늦게까지 역전에 역전, 환성과 탄식이 교차하는 열기 속에 진행됐다.

대회가 끝난 후 인근 은행나무집에서 송년만찬이 이어져 저무는 한해의 회포를 풀었다. 후원기 회장과 윤악한 상담



역이 대회장을 찾아 회원들의 선전을 격려해 주었고 흥회장과 정운종 산악회장이 협찬금을 보내왔다. 입상자 외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김성수, 길윤석, 백환기, 이상우, 이억순, 이종기, 장두원, 주종환, 최종수, 한경석 회원

사우회 소식

각 언론사 사우회 송년회 일시 및 장소

경향신문 사우회=12월 6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

동아일보 사우회=12월 20일 오후 6시 AW컨벤션센터 (구 하림각)

서울신문 사우회=12월 8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신아일보 사우회=12월 6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이따리아노 부페

조선일보 사우회=12월 21일 오후 6시 조선일보 미술관

한국일보 사우회=12월 7일 오후 5시 30분 남대문로 한국일보 사옥 26층 홀

MBC 사우회=12월 15일 6시 마포 가든호텔 무궁화실

SBS 사우회=12월 1일 6시 마포 가든호텔 2층 무궁화실

동아·조선 광화배 친선 바둑대회

제9회 광화배 친선 바둑대회가 동우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28일 한성기원에서 거행됐다. 광화배 친선바둑대회가 벌써 9회째를 맞는데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박창래 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친 열전 결과 조우회가 15승 8패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시상식 후 회식 자리엔 김광희 동우회 회장(본회 회우), 이병대 부회장(본회 부회장) 및 조우회 송형목(본회 회우) 초대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었다.

KBS

원로회원 초청 잔치

원로회원(75세 이상) 초청 잔치가 10월 25일 낮 12시 여의도 종식당 신동양에서 베풀어졌다. 이날 잔치에는 본회 서병주 김은구 김수용회우를 비롯 100여명이 참석해 오찬을 들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11월부터 청첩장 등에 필요한 주소 라벨을 제작해 사우회원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다.

회우 경사

* 결혼 *

* 전민조 회우

12월 10일(토요일) 오후 6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장녀 결혼

* 손일근 회우

12월 17일(토) 오후 5시30분 신라호텔 2 다이너스티홀에서 아들 결혼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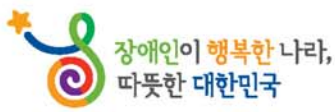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대상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기

연중 수시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자원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 ※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관련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홍보대사 박진희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활동지원급여종류 :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오래 오래 믿고 타실 수 있도록 쏘나타 하이브리드만의 약속

[국내 최장 10년 20만km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무상보증 확대]

*상시 보증기간 제공차량 기준

10 YEARS 200,000 KM



[전용부품 보증기간 확대기념 1020이벤트] 11월 10일~12월 20일 출고고객중 추첨
1등(1명) : 1,020만원 주유권 제공 / 2등(10명) : 20만원 주유권 제공 / 3등(20명) : 10만원 주유권 제공

SONATA hybrid
UNEXPECTED

쏘나타 하이브리드만의 완벽한 감동을 향한 4가지 약속

*자세한 사항은 지점/대리점 방문 및 홈페이지(www.hyundai.com) 참조

1 무상보증 프로그램 10년 20만km,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무상보증
국내 최장 보증기간(상시보증기간제공차량 기준)/전기구동모터,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 HPCU

2 중고차가격보장 프로그램 구입 후 5년 동안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가 보장

3 차종교환 프로그램 구입 후 30일내 불만족 시 다른 차량으로 교환
교환가능차량: 쏘나타, i40, 그랜저, 싼타페, 베라크루즈 (차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부담)
*주행거리 500~2000km 이내, 사고시 수리비 30만원 이내 *2011년 12월 출고고객 대상

4 신차교환 프로그램 구입 후 1년 이내 사고 발생 시, 신차로 교환
수리비 차량 가격의 30%이상, 차대차 사고 타인과실 50%이상
*2011년 12월 출고고객 대상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단 원콜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뉴우(차) 2.0 Hybrid : 21km/ℓ / CO2 배출량 : 111g/km / 배기량 : 1,999cc / 공차중량 : 1,560kg / 자동6단(1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BLU hands** 차량관리서비스는 BLU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량관리서비스는 BLU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량관리: 블루핸즈, 케어서비스 / 긴급출동 / 블루모인트 / 컨인서비스